중곡4동
마을자치이야기

주민자치회
마을공간
마을공동체



중곡4동
마을자치이야기

목차

중곡4동
마을자치이야기

중곡4동 주민자치회 이정인 회장 01

중곡4동 주민자치회 권영숙 부회장 13

중곡4동 주민자치회 이윤주 간사 21

중곡4동 주민자치회 김창선 생활안전분과장 29

중곡4동 주민자치회 김선훈 문화예술분과장 37

중곡4동 주민자치회 손용남 복지분과장 45

중곡4동 주민자치회 우동훈 위원 53

중곡4동 주민자치회 손재표 위원 63

중곡4동 주민자치회 이희진 위원 71

중곡4동 주민자치회 김형우 위원 81

중곡4동 주민자치회 윤덕조 위원 91

중곡4동 운룡도서관 이명우 관장 101

중곡4동 한살림모임방 안명자, 진길순 활동가 109

중곡4동 마을공동체 '긴사모' 백임선 회장 117

중곡4동 마을공동체 '차와 만남' 정옥금 123

중곡4동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김철영 135

중곡4동 마을공동체 '율당&유자놀이터' 이수호 145

중곡4동 마을공동체 '퀼트와 함께' 이정원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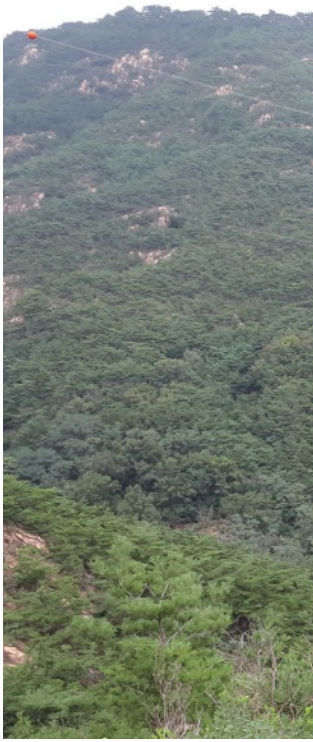
중곡4동 마을공동체 '샌드맘' 안도경 167

중곡4동 마을공동체 '배실나이' 허미선, 도혜연 177

중곡4동 '스패너스튜디오' 최현주 작가 185












1.18km
용마산정상
Top of Mt.Yongmasan
용마산(긴고랑공원)
Yongmasan(Mountain)(Gingorang Park)
0.35km
0.37km
용마산2보루
Yongmasan Fort 2
용마산등산로

중곡4동
마을자치이야기

주민자치회 이정인 회장

지난 6월 광진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으로 꼽힌 중곡4동 주민자치회 이정인 회장님과 12월 말 자리를 함께하였다.
광진구 15개동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이시며, 서울시 25개구 주민자치 위원이시기도 하다.

01



진작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늘 이렇게 바쁘신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아이를 보러 갔다가 코로나로 귀국 일정이 늦어졌어요. 입국하고 보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모든 사업을 하반기로 미루었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난망했습니다. 4분기 들어서서야 필수적인 주민 사업을 실행에 옮기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올 한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하시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현실이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원래 주민들과 친목도 다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도 하고자 뜻을 모으고 실행하느라 하반기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활동은 크게 우리 마을 가꾸기, 수공예 만들기, 장 담그기, 밑반찬 만들기로 각 분과에서 맡아서 진행했어요.
우리 마을 가꾸기는 반려 식물을 위원들이 두 개씩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이 키우고 하나는 봉사 차원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청사 내의 환한 꽃과 화분들이 그 결과입니다. 강사님을 초빙하여 배우면서 직접 심고 화분 따로 꽃 따로 회원들이 꾸몄습니다. 봄이 되면 청사 주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방문하시는 회원들, 주민분들이 꽃들을 보고는 환호하시고 좋아하세요.

수공예 만들기는 큐빅을 끼워서 마스크 줄을 만들었어요. 장애인들에게 줄 계획이고요, 또 어르신들께는 가방을 만들어 드렸는데 은

행 등에 가실 때 들고 다니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큰 사업으로 고추장을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는 '공감밥상사업'인데, 혼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콩조림, 김, 장조림, 연근조림, 멸치조림 등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좋은 재료를 쓰고 맛있게 만드느라 위원님들이 애를 쓰셨지요. 약 40여 분에게 나누어드렸습니다. 60~70명으로 인원을 늘리기보다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드려서 밥상이 푸짐하게 하자는 취지를 살린 거지요.
고추장 5L와 6가지 밑반찬 용기를 받은 주민들이 크기와 부피에 매우 놀랄 정도였으니까 내용물은 풍성했어요.

03

고추장까지 담그려면 꽤 많은 인원과 시간,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고추장, 밑반찬 만들 때도 코로나로 인해 최소인원이 할 수 밖에 없어서 고생이 많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 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아무래도 먹는 게 부실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밥만 해 놓으면 반찬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들의 식사를 돕는 일인지라 다들 힘들어도 웃으면서 열심히 했지요.
작업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지하 마을활력소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생활안전분과와 더불어 다른 분과에서도 자진하여 참여해 주셨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남자분들이 기계를 들고 와서 힘껏 저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들러서 잠시라도 일손을 돕는 분들, 고구마,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거리를 사서 오시는 분들로 인해, 정겨움과

따뜻함이 묻어났죠. 그러다 보니 몇 날 며칠을 야근에 힘든 노역이 었음에도 깔깔거림이 끊이질 않았어요.

마을신문을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언제 나오는지요?

우리 중곡4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제작하는 중입니다. 원래 취지는 르블랑(구 백악관)에서 면목동 입구까지 중곡4동이 길쭉하여 양쪽 끝은 서로 잘 몰라서 아차산 메아리처럼 소식지를 월간으로 내려고 했어요
이 또한 코로나로 연간지가 된 셈이네요. A3 크기에 12쪽 분량으로 곧 나올 예정이에요.
내용은 크게 우리 동의 자랑거리로 대원외고 등 7개 학교가 자리한 인재 양성의 고장, 뻥튀기공원, 아차산 보루 등을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의 1년 활동, 각 분과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밖에 우리 동네 행사 일정도 소개합니다.

축제를 가보면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광진구 청소년축제를 해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중곡4동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범위를 넓혀서 구 단위로 했는데 초등생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춤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못 했지만 앞으로 축제로 지속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마을 축제로 마을의 특성을 살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을 일을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지역 일하는 분들에 대해 할 일없는 사람 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지 않던가요?

저도 관심이 없었으나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2018년 1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중곡4동 주민자치회 회장이면서 광진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시범동 중에서도 중곡4동은 마을활력소 사업, 주민자치회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3가지를 모두 하다 보니 일이 많아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퇴근도 늦어서 집에서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기적인 분과장 회의를 비롯하여 주 1회 정도 사업 관련 회의를 하니까 매일 야근해요.
봉사의 달인으로 소문난 부회장님(권영숙), 감사, 간사, 지원관님 등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몹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연장선에 있어서 몹시 바쁩니다.
현재 지원관님하고 간사님은 야근, 주말 근무도 해가면서 1년 사업 마무리 중입니다.

*남편 되시는 홍 회장님은 의용소방대가 성동 광진 하나였을 때 6년간 소방서 연합회장, 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 등을 하신 분으로 지금도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세우셨나요?

일반적으로 긴고랑로 하면 사람들은 고랑이 길게 있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를 제대로 홍보해보고자 해요.
긴고랑로 입구에 아치형 대형 안내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주민세 사업의 주된 항목으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려 합니다.
이 밖에 주말 아이 돌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전 예약을 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인터뷰 이후, 예산 조정으로 인해 사업이 일부 축소되거나 조정되었습니다.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투표까지 해가며 선정된 자치위원들인데, 봉사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와서 보니 생각과 매우 다르다고 나가기도 하고, 코로나로 활동이 적으니 관심도가 낮아져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에 비하면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지만 유익하고 보람이 있는 활동이어서 그다지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람을 느끼셨나요?

시장 봐오고 4~5명이 다듬고, 조리하며 직접 장을 담그는 과정이 팔다리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애도 돈독해지더라고요.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재료를 마련하여 우리가 직접 만드니까 자부심도 생기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어렵다고 추천한 분들 외에 동네에서 알음알음 어려움을 아는 분들을 찾아서 드리니까 더욱 보람이 있었어요.

끝으로 주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광진구가 살기 좋은 동네이지만 앞으로 더욱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을자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마을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5개 구 연합회장들의 회의나 모임에 가면 배울 게 많습니다.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했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의 훌륭한 점들은 우리 마을에 접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이정인 회장



09













주민자치회 권영숙 부회장

**봉사정신으로 꽉 채운 중곡동 살이.
권영숙 주민자치회 부회장, 이웃에게 봉사
하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권영숙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중곡4동에서 산지 올해로 40년이다. 권영숙 부회장에게 중곡4동은 커다란 집이나 다름없다. 남편의 형제, 자매 7가족이 모두 한동네에 살기 때문이다. 자손들 역시 중곡4동에 둥지를 틀었다. 한곳에 오래 살며 마음이 편안해져서일까? 권영숙 부회장의 마을 봉사는 27년을 훌쩍 넘었다. 가족, 이웃들과 푸근하게 살아온 40년, 권영숙 부회장의 행복한 '중곡동살이'를 들어보았다.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 내가 하면 된다!

권영숙 부회장님의 봉사활동이 올해로 27년째라고 들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의 시작이 어떤 계기였는지 궁금합니다.

95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 등굣길 안내하는 교통 봉사를 했어요. 제가 꾸준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동네 이웃께서 새마을문고 활동을 권유하셨어요.

당시 새마을문고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총무, 회장을 뽑았는데 서로 안 하려 한 이유가 있었어요. 구청에서 새마을문고에 주는 보조금이 고작 월 10만 원인데, 정산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봉사하면서 제 돈이 더 들어가지요.

보조금 외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짐작됩니다.

사실 새마을문고가 겉으로 보기엔 편하고 깨끗한 자리에서 책을 대여해주는 업무가 전부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부대에 찾아가서 책 나눔 활동을 하고, 집에서 잠자는 책을 가져오면 도서 교환도 해줍니다. 여름철에 휴가지에서 문고전을 열고, 봄·가을엔 도서교환전과 백일장과 같은 행사도 열어요. 하는 일이 많은 데 비해 인정을 못 받는 활동이었습니다.

내 생애 가장 소중한 경험들

그렇게 힘든 활동인데도 새마을문고 활동을 오래한 만큼 보람 있고 재미있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네, 저는 새마을문고의 모든 게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주민자치센

터에 칸막이 하나 놓고 천정도 없는 데서 문고를 운영했는데, 센터 이전을 하면서 1층에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책꽂이가 텅텅 빈 거예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 적어서 책을 사서 채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책을 채우느라 굉장히 고생했죠. 동장님은 책 기부받으러 많이 다니셨고요.

그중에서도 잊지 못할 일은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500만 원을 지원해주신 거예요. 그때 책꽂이를 신나게 채우고 자축 행사도 했답니다. 참 보람을 느꼈죠. 또 당시 나루아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도서교환전을 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여행하듯 다녀오곤 했어요. 여행용 가방에 책을 잔뜩 싣고 돌아올 땐 마치 제가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채워나간 문고여서 연임이 끝났을 때 제 손때가 묻은 책과 물건들이 마치 자식과 같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는데요. 새마을문고 활동이 권영숙 부회장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게 된 계기가 됐죠. 새마을문고가 주민센터의 꽃이 되도록 노력했고, 실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유대를 쌓고, 문고 활동으로 즐겁게 책을 읽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보면 마냥 행복했습니다. 새마을문고 활동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적십자회에서 회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적십자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에 새마을문고 활동을 하느라 주민자치센터에 드나들 때, 60세가 넘은 어르신이 적십자회 반찬 배달 봉사를 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로한 분이셔서 손, 허리 통증 때문에 봉

사활동을 힘겹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곁에서 도와 드리다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식자재와 생필품을 배달해드려요. 길에서 노란 조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조끼 입으신 분들이 바로 적십자회입니다.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봉사의 맛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간도 많았을 법한데 봉사활동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지인 소개로 녹색가게 봉사도 합니다. 녹색가게의 취지가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 가면 새 생명을 찾는 순환의 구조가 아름답잖아요. 휴카페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휴카페에서는 커피가 한 잔에 천원이에요. 원두는 신선하고 좋은 것을 쓰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라 많이들 찾아주시죠. 그리고 휴카페의 수익금으로 김치를 담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갖다 드렸는데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뿐만 아니라, 적십자봉사회도 같이 봉사를 했답니다. 복지관 봉사도 했고요. 자원봉사캠프도 해 봤지만, 적십자 봉사가 늘 자랑스럽고 자원봉사 자부심을 늘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반찬조리를 직접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배달도 하며 '희망풍차'라는 활동으로 다문화, 한부모, 독거어르신까지 쌀과 생필품을 전달해드립니다.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전달드리는 참다운 적십자 봉사원들이 정말 존경스럽지요. (웃음)

이제는 주민자치회 활동까지 하시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곡4동에는 거주하는 3만명이 넘는 주민대표의 봉사단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더 불편없이 살아가며 행복해지도록 가꾸어 가야죠.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움이 될 수 있게 행정과 복지를 연결하는 심부름 역할과 마을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즐기며 이웃과 가족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글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즐겁고 제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나이 먹고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도 보람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오래도록 참여하고 싶고요. 늙어서 거동이 어려울 때까지 봉사활동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웃에 봉사하겠다는 열의가 존경스럽습니다. 가족들은 권영숙 부회장님의 봉사활동에 반응이 어떠세요?

제가 항상 남편을 존중하는 만큼 남편도 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는 동안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줍니다. 남편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못 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고맙죠. 그리고 가까이 사는 남편의 형제, 자매들도 제가 하는 일들을 응원하고 다독여줘요. 지금껏 한 번도 싸우거나 등진 일이 없을 정도로 우애가 깊은데, 이러한 가족들이 있어 제가 밖에서 봉사하고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권영숙 부회장은 매콤한 김치전과 매실차를 대접해주셨다. 아침부터 손수 준비한 음식이었다. 한창 바쁜 와중에도 찾아온 이들의 출출함까지 살뜰하게 채워준 권영숙 부회장. 그녀의 따스한 마음씨는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우리에게 한 가닥 울림을 전해주었다.


교회
010-8615-4187
MINI STOP



주민자치회 이윤주 간사

행복바이러스를 전하는 이윤주 간사.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찾아오는 주민이라면,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주 간사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웃음으로 인사하는 행복바이러스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송파구에 살다가 중곡4동에 온 지 15년 되었습니다.

만나는 주변 어르신들마다 지역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중곡4동에서 통장만 6년을 했고 통친회장도 2년 했어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사람 만나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주민자치 간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해보자는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재미있어요. 과거 통장 시절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 늘 새로움을 느낍니다.

간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도맡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지원을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회계장부를 관리하기도 해요. 회의가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하고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연락도 해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진행도 하고 회의록 작성하는 것도 간사 몫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는 일이 참 많네요. 행사나 회의 시 활동사진을 찍고 관리도 해야 하고, 요즘에는 사업계획서나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매일 야근하고 있어요. 그 밖에 주민자치회 통장, 직인, 카드 관리,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있고, 분과 운영도 돕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회계 일을 배우며 실무를 하느라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요. 처음보다는 매우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어렵긴 해요.

결론적으로 곳간지기 역할인데, 싸고 좋은 물건 사려면 발로 뛰어야만 하니 늘 바쁜 편입니다.

간사가 하는 일이 매우 많네요.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일은 무엇인지요?

앞에 얘기한 것은 공식적인 부분이고 실은 전화 통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간사이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편이기도 하지만, 회의나 일이 있을 때 문자로만 주고받으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회의에 못 오신다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해요. 그동안 다져 놓은 친밀감이 실력 발휘를 하는 때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못 올 만한 전후 사정을 알게도 되고 때로는 함께 고민도 나누게 되면서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주민자치회 참석률이 높아지는 게 이제까지의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시콜콜한 듯한 사연 전화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하물며 그만두려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저와 통화를 하면서 생각을 바꾸신 일화도 있습니다.

공문 한 장 보내고 마는 것과 간사가 직접 전화하는 것은 차이가 크죠. 표는 나지 않지만 중요한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간사를 하시면서 특히 어떨 때 보람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통하고 친해지니까 어디를 가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고 편하게 대해 주시는 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행복 지수가 늘 상승해요.

제가 많이 들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웃기도 잘해요. 그래서일까? 저한테는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때에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적인 말씀들도 하세요. 물론 절대로 말을 옮기지 않는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집단을 이루다 보니 오래전부터 있던 분들끼리 은근히 반목이 있기

도 해요. 이런 면을 알고 있어서 회의 시 자리 배치나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돼요.
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주민자치회 1년 해보시니 어떤 소회가 드십니까?
또, 중곡4동에서의 주민자치회는 어떤가요?

주민자치회는 처음이라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는 친목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고 편했는데, 자치회는 공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이에요.
"주민자치회가 뭔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이 주인이고 스스로 마을 일을 판단,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행하면서 보니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정해진 업무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있나요?

아침 10시에서 17시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보통 두 세 시간 더 일하게 되어서 퇴근이 늦는 편이지요.
회장님 임기가 내년이시니까 저도 그때까지 할 생각이에요.
활동비를 약간 받기는 해요. 그래서 부담은 돼요. 과거에 활동비가 없이 근무하던 때보다는 아무래도 편치 않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늘 기대하고 사무실로 향해요.

어떤 면이 힘드신가요?
자치위원분들이나 분과위원분들께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사회생활은 역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이 모이다

보니 배경과 생각, 바라는 바도 각양각색이시지요.
이분들이 마을을 위해 단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코로나로 자주 모이지 못하여 아직 서먹서먹한 면도 있어요. 내년에는 자주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요. 각 분과에 17분 정도 계시는데 행사 때마다 6~7분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혹시 통친회와 상충되는 건 없을까요?

있어요. 서로 대립될 수 있어요.
일할 때 보면 구역에 따라 인원이 얼마나 나오는지 서로 경쟁도 되고, 자기 구역에서 혜택을 더 받으려고 나서기도 해요. 통장들이 할 일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이 중첩될 수도 있어요.
통장 출신인 분들이 이런 자치회에 참석하여 그 통의 일들을 우선순위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불우이웃 돕기에도 통장들의 업무와 겹치니 매번 같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문제도 있고요. 자기 아는 사람들 위주로 추천이 되기도 하고. 중복되는 경우 많아서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 이 정도만 되어도 침묵과 무관심보다는 훨씬 바람직해 보입니다.

향후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교류하고 싶어요. 실제로 위원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때로는 선술집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공식 석상에서 못한 사연들을 털어놓기도 해요. 이러한 진솔한 관계가 결국 마을 일도 잘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주민자치회 김창선 생활안전분과장

주민자치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동네를 다니면 마을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주민자치회 김창선 생활안전분과장님은 이제 골목의 쓰레기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깨끗하고 안전한 중곡4동의 모습이 기대된다.



특공무술을 하셨다는데 소개 좀 해주시지요.

지방(익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운동을 전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기도를 하다가 특공무술로 전환하였지요.
특공무술은 1978년에 대통령경호실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전군에 보급하게 되었어요. 특공무술이란 명칭도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공무술은 사회에서 군으로 보급된 운동입니다.

중곡동에 84년부터 살아오면서 특공무술 체육관 운영을 했습니다.
체육관은 잘 되는 편이었죠.
특공무술이란 자기를 보호하는 운동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운동들도 초등학생들 위주로 수련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체육관은 신성 시장 인근에 50평 정도 크기로 2~3번 옮겼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서 길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는 체육관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공무술 협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보시니 과거와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자치활동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니 마을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도 쓰레기가 쌓여있는 현장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왜 그곳에 쓰레기가 버려지는지 생각을 하고 개선방안을 구상하는 등 시야가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는 회의 때 건의도 하고 문제점 지적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는 그저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이나 발급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주민자치 활동을 시작한 지는 2~3년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중곡동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한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주로 교인들 대상이잖아요.

제가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게 되고, 이러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의 폭을 넓히도록 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죠. 이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가 하나가 되어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장님과 자치회 회장님도 나서면서 다른 교회들까지로 확산하였어요. 예를 들면, 매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하반기에는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기금을 내고 있는데, 연초에는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50만 원씩, 매년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 청소년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2천만 원 넘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교회 바자회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생활안전분과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중곡4동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최초로 이름을 날린 경험이 있어요. 2019년 5월 25일 뚝섬에서 열린 구민 체육대회에서 중곡4동이 처음으로 우승도 하였고 입장상까지 받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모두

15개 동이 참여한 구민의 날 행사에 그동안은 참석에만 의미를 두다가 이날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날입니다. 다른 분과에서도 모두 내 일같이 도와주었고 많은 인원이 참석했어요.

회장님 등 많은 분과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셨고 내가 체육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 단합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하여 얻은 성과였습니다.

그동안은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 똘똘 뭉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때부터 단합하면 뭐가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졌다고 생각해요. 봉사할 때도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서 주는 게 보여요.

이를 계기로 중곡4동 주민자치회는 더욱 활기를 띠고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쉬운 점은 올해 코로나로 이런 행사를 못 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단합의 기회를 얻었다면 35,000명 주민의 자긍심이 훨씬 높아졌을 텐데 말이죠.

무술인으로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나 간단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술을 하다 보면 몸에 관한 연구를 당연히 하게 되죠. 교정법, 활법, 치료법 연구와 혈 의학 공부를 30여 년 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도 그 자리에서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치료는 기술이 필요하지요. 실제로 운동 중 다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의사는 아니지만, 머리, 무릎, 팔, 다리, 허리 등을 간단히 치료하는 법은 숙달이 되어있어요. 몇천 번을 다루다 보니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혈자리 세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합곡이라 하는데, 소화불량과 구안와사에 치료 효과가 있으며, 자주 눌러주면 변비도 없어집니다. 체기가 있을 때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기만 해도, 트림이 나고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이 체했을 때, 그 부분을 눌러주면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태충혈입니다. 양발의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서 발등 쪽으로 2cm 위에 있는데, 이 자리를 눌러 주면 눈이 밝아지고 피로회복에도 좋아요. 아이들은 합곡과 태충만 눌러주어도 어지간한 체기는 금방 뚫리지요.

마지막 중요한 혈자리가 용천혈입니다. 엄지발가락 뒤의 도톰한 부분이 끝나는 움푹 패인 곳인데, 평상시에도 눌러주면 건강에 좋아요. 결론적으로 평상시에도 합곡, 태충, 용천 세 군데만 눌러주어도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서 도구 없이도 2~3분만 눌러주면 소화가 잘되며 부작용도 없어요.

과거에 병원 못 갈 때는 침을 놓거나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낸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히 볼펜이나 나무 조각 같은 것을 사용하여 눌러도 됩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만나서 알리고 주민들이 협조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해요.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 소외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원관님이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마을자치센터에 방문한 적도 없고 알 기회도 많지 않아요. 앞으로는 서로를 잘 알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임원들이라도 한번 모여서 방문을 하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4

주민자치회 김선훈 문화예술분과장

83년도부터 40년 가까이 중곡4동에서 태권도장과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시며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하고 계신 김선훈 문화예술분과장님을 만났다.
중곡4동이 제2의 고향 같다는 말씀에 푸근함이 느껴졌다.



마을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는지요.

예전의 자치위원장님이 저를 추천하셔서 마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8년 정도 했고 그때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태권도장을 할 때라서 오전만 약간 시간이 나고 저녁까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활동을 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하려 노력했지만 다른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나니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참 어려웠습니다. 같은 마을 일이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회장님이랑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매일 나와서 일을 하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걸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은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따지자면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다시 보게 되구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어느 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면 위생 부분과 환경 문제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가 마을 일을 하게 돼서 그런지 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대하고 보는 눈이 변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웃음)

중곡4동에서 태권도장과 어린이집 둘 다 운영하셨네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시골은 낙후돼서 학교도 없었어요.

큰 도시로 나가서 학교 다니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후로 서울에 올라와서 운동을 계속하다가 군대 제대하고서 83년에 여기 중곡4동 신성 시장에 체육관을 차렸지요. 그때는 태권도에 유치부가 있었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97년부터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는 어린이집도 많이 활성화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4층은 태권도장을 하고 어린이집은 2층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태권도 제자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 보면서 한 세대가 지날 만큼 같은 곳에서 오래 운영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또 제자가 그렇게 찾아오니 보람도 느낍니다.

올해 문화예술분과는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코로나19로 실행하지 못해서 몇 가지만 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수공예품 만들기'라고 해서 주민센터 4층에서 마스크 줄 만들기와 가방 만들기를 했습니다. 강사님을 모셔와서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지요. 마스크 줄과 가방을 각자 2개씩 만들어서 기증받을 선정자들에게 1개씩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공감 밥상'이라고 하여 한부모 가정과 독거어르신에게 반찬과 고추장을 만들어 전달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분과위원들과 회원들 다른 분과위원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반찬을 만들기 위한 재료 주문과 재료를 다듬고, 만들고, 반찬통 씻기 등 각 가정에 전달될 장바구니에 따로 담아서 전달하기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주셨습니다.

중곡 4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차산과 긴고랑계곡이 위치해 있는 중곡4동은 자연과 친화적인 생활환경에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어르신들도 노후를 보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 셋을 다 키웠고, 노후도 중곡 4동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마을에 좀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곳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긴고랑에 주민 쉼터를 더욱 많이 만들면 좋을 거 같아요.

현재는 여름이면 냄새도 나고, 돌도 많이 튀어나와 편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정비를 통해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주민들이 발 담그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아차산 둘레길로 해서 걸어 다니는데 아차산 입구를 보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거기는 1년 열두 달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래서 그쪽은 발전도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중곡4동도 긴고랑이 발전되면 지역이 발전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도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웃음)

어린이들 교육에 오래 관여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제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태권도는 기본이 인성교육입니다. 특히 부모와 어른들에게 예절 바른 생활과 태도를 갖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집이나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할수록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공공장

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인지 좀 더 생각하는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김선훈 문화예술분과장님은 내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자치회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중곡4동 아이들이 태권도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예임교회
경찰







주민자치회 손용남 복지분과장

밑반찬 만들기, 공감밥상 나누기 등 부엌일을 할 때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반찬을 드실 소외계층의 주민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주민자치회 손용남 복지분과장님.
정말로 복지분과장을 잘 맞으신 것 같다.



마을 일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서울에도 부녀회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부녀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녀를 늦게 출산하다 보니 아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새마을부녀회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웃음)

봉사를 오래 하신 걸로 아는 데 어떤 직책들을 가지셨는지요.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거의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부녀회장과 광진구 구의회 임원을 6년간 겸임했어요. 지금은 부녀회장 임기가 끝나고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부녀회 활동 중에 자치회 활동도 권유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복지분과장을 하고 있네요.

예전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을 말씀해주시겠어요.

한 10년쯤 전인가? 광진구청에서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3일간 한국 가정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아기들을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맡기면서 불안한지 교육 중간중간에 아기들을 보러 나오더니, 마지막 날에는 기념사진을 찍을 때 아기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아기를 저한테 안기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할머니가 된 기분도 들고, 아기 엄마가 저를 믿었으니 아기를 맡겼겠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곳에서의 교육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외국인 엄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이야 미리 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막상 외국인 엄마들을 대해보니 아기 기저귀 처리하는 법부터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교육도 이루어졌어요. 힘은 들었지만, 재미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활동을 많이 못 하셨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동이 많이 줄긴 했어요. 특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활동이요. 그래서 밑반찬을 만들어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독거어르신께 나누어드리게 됐습니다.

일주일 밑반찬을 테마로 연근조림, 멸치볶음, 꽈리고추볶음, 장조림 같은 반찬을 만들고 김이나 참치통조림, 스팸 같은 것도 준비했습니다.

고추장도 저희가 직접 담가서 함께 나눠드렸어요. 저희 복지분과 총무님(자치회장님, 부회장님, 간사님, 조용예 복지협의체위원장님) 외에도 자치회원들, 다른 분과 회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서 했지, 복지분과에서만 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습니다.

메주가루나 물엿, 소주 같은 재료도 예산을 맞춰서 사느라 계산을 잘해야 했어요. 고추장을 다 담그고 나서 5kg짜리 통에 소분해서 반찬과 함께 나누어드렸습니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봉사하시면서 보람은 어떤 때 느끼셨는지요?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먼저 저를 알아보시곤 인사를 해주세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십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는 일이 많았는데, 드릴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고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없어져요.

일할 때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일을 마치고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나면 '잘했다'하는 보람이 있어요. (웃음)

친한 이웃들도 많으시겠어요.

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좋은 일을 하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활동하다 보니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중곡4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조용한 주택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동네 뒤에는 아차산이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그런 건지는 몰라도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마움을 잘 느끼시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걸 생각해보면, 꼭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이웃

사이에 자연스레 생기는 온정을 나누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들 말고 특별히 고마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홀로 계신 분들을 효 나들이로 모신다니까 모 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가을에는 독거 어르신들과 차상위계층 위주로 겨울 김장을 해드린다고 하니 모 회장님께 찬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감사한 마음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중곡4동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중곡4동 파이팅!

오랜 세월동안 봉사를 하신 손용남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장님은 인터뷰 내내 다른 분들에게 더 감사하다고 하셨다. 중곡4동에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손용남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장님과 같이 마을을 위해서 꾸준히 봉사하는 분들이 선한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손용남 복지분과장




WORLD
MAROON
한의원
1층
광진경희한의원






상회


긴고항길

주민자치회 우동훈 위원

아차산역 1번 출구에서 앞을 똑바로 보면 저만치 우뚝 선 건물이 보인다. 웨딩부띠끄 르블랑. 이 동네 광진구에서 특히 중곡4동에 살면서 저곳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역사와 유명세가 있는 옛 이름 '백악관 예식장'은 지금 조용하다. 그 건물의 우동훈 사장님은 작년부터 중곡4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인터뷰는 오래 활동하신 어머님이 하시는게 마땅하지만, 현재 병환으로 잘 움직이지 못해서 위원님이 대신한다며 무척 안타까워했다.



백악관 예식장은 이랬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은 이북에서 내려와 자수성가하셨다.
혜화동에서 78년에 이곳으로 이사 온 뒤 어머님이 예식장을 80년 초부터 약 30년 넘게 운영하셨고, 자식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도와드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예식이 30분 단위로 운영 되었다. 평일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혼한다고 모두 오니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주말이면 예식장은 늘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
그때는 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주변 식당에서 식사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그러다 예식장에서 먹는 문화로 바뀌면서 백악관도 식당을 직영으로 바꾸고 시설을 갖추느라 97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새로 짓게 되었다.

백악관 예식장 이름이 현재의 르블랑으로 바뀐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예전에는 예식장 계약을 결혼할 당사자인 자녀들이 아닌, 부모님이 와서 했는데 5~6년 전부터는 결혼할 본인들이 와서 계약하는 추세로 변했다.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백악관이라는 이름이 촌스럽다고 느껴져서 프랑스어로 하얗다는 뜻의 '르블랑'으로 바꿨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 원성도 많이 들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은 예식장 오는 손님들과 대면하면서 낯선 이름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지금도 예식장 건물 앞에서 통화하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느라 "옛날 백악관 있잖아, 백악관!" 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사업가 기질, 어머님은 광진구를 위하여

어머님은 구청의 많은 일을 하셨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사이신데 그 회원 중에서 광진구 지역 분들이 모여서 장학법인을 설립했다.
올해로 18년 동안 장학 사업을 했고 엊그제도 광진경찰서에서 추천한 탈북민 학생들 1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 장학회의 특징은 부모와 자식이 대를 이어서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500만 원을 내고 들어와 회원이 된다. 위원님도 현재 어머님을 대신해 대리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은 선거 때마다 투표소로 지정되어 80년대부터 지금껏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다. 위원님 동생도 광장동에서 작은 커피숍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코로나 시기라서 방역만 제대로 해달라는 전제로 투표소로 장소를 제공했다.
위원님이 예식장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동안은 투표소공간 제공을 못 할 것 같다고 염려했다. 새 건물에 커피숍 같은 공간이 들어오면 꼭 다시 지원하겠다고 한다.
장사 하루 더 하는 것보다 지금껏 지켜 온 투표소 장소 제공이 더 의미 있다는 말씀에 공감되었다.

중곡4동을 품 안에

위원님이 사진 액자를 하나 보여주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한복과 정장을 차려입은 어르신들 50여 분이 찍은 사진에 <중곡4동 노인회 경로잔치 1984.5.9.>라고 찍혀있다.
오래전부터 어머님이 주관하셔서 해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예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린 행사였다.
이 행사를 나중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관했으므로 백악관

은 장소 제공이나 다른 것들을 돕게 되었다고 한다.
작년 어버이날에도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분들 550명 어르신께 갈비탕과 선물을 제공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전하셨다.

백악관 예식장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예식 코너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는 5쌍에서 10쌍의 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해드렸다. 예식 때 사용한 드레스도 많이 남아 구청이나 지역의 새마을부녀회 등에 기증하면 세탁하고 손질해서 사용한 것으로 안다.
더 나아가 어머님 칠순 때 동네에 칠순이신 분들과 함께 칠순 잔치를 해서 같은 나이에 이웃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마음 씀씀이는 탁월한 넉넉함이었다.

업종을 바꾸셨다고요?

"사실 이곳은 부모님께서 일구어오신 가업이라 저희 자식들이 땅을 팔지 말고 뜻깊게 광진구와 중곡4동을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중곡4동에 계신 주위 분들 보기에도 부모들이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다 팔아버리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후세들이 여기 남아서 구청에 할 일 있으면 돕고 우리도 어디서든 살아야 하니까 부모님이 오래 사신 중곡4동에 남자고 했지요."

또한 중곡4동을 굳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오래 살아서 교통도 편하고 아이들 키우는 데 안전해서 문제없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정도 있고 물건값도 싸다. 아차산과 대공원 있고 한강도 가까워서 좋다고 하신다.

예식업은 한동안 잘 되다가 현재와 앞으로는 내림세로 보고 계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추세이고 하객도 예전에는 500~1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아야 300명이다. 많은 사람이 북적대고 난리통 같은 예식문화를 바꾸고 싶어서 예전에 어머님과 일본과 미국을 돌아다녀 보기도 하셨다고 한다.
예식장 하객들 자리가 지정석이라 혼잡하지 않고 결혼하는 측이나 손님이나 여유 있게 축복하는 예식문화가 인상적이어서 우리도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예식사업을 아예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는데 올 초부터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걸 보니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청사진, 청년 주택을 가슴에 안다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은 청년 주택을 짓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시에 청년 주택 사업을 신청해서 서류심사에 들어갔고 도면도 나온 상태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까지 지금보다 더 높이 우뚝 설 예정이고 젊은 층이 이용하는 공간들과 병원도 들어온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면 연말쯤 건물을 부수고 내년 초부터는 짓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260세대가 살 집이 백악관 예식장 이 자리에 새롭게 지어진다.
어린이대공원이 앞에 있고 이름과 건물은 계속 명소로 남으니까 백악관을 다시 넣어서 "파크뷰 백악관"으로 옛 이름을 살린다. 16층 높이라 전망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14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만들어져 중곡4동의 매우 심각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위원님이 구상하는 청년 주택의 다른 모습은 이렇다.

입주한 젊은 사람들과 주말이면 아차산 등산을 하고 봄과 가을에는 옥상에서 야외 바비큐 파티를 연다. 공동 주방과 세탁방을 따로 만들어 두어 그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공간을 제공한다.

새 식구가 이사 들어오면 입주자 대표가 안내하고 환영회도 해주고 각 집은 개개인의 특색을 표현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비록 똑같은 모양의 딱딱한 아파트에서 살지만, 위원님은 사람이 살고 사람을 느끼는 아파트를 추구한다.

중곡4동의 미래는 커뮤니티

요즘은 좋은 의미로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전 어머님 때처럼 내 돈을 가지고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이 나서서 주관하는 일은 없어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개인은 지원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방식이다.

또 크지 않은 동네에서 사람들과 마음 모으기가 힘들어진 것도 마을에서 협의가 어려운 점 중 하나다.

같이 사는 마을에서 개인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함께 잘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마음자세와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가족을 만들어가는 청년주택

위원님의 청년 주택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입주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볼까? 많이 고민했고 임대주가 아닌 아버지나 할아버지, 오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다. 등산이나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

하는 동안은 가족이 되자"라는 바람으로 그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
그들이 사회 초년병으로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북 카페, 휴게실,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등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마음껏 소통할 수 있게 돕는다.
그들과 함께 기본 바탕을 잘 이루어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어디서건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하리라 기대한다.

우동훈 위원님은 부모님이 마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 자라서 본인과 형제들 역시 마을 일을 이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위원님의 소망대로 젊은이들이 파크뷰 백악관에서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젊음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진정한 이웃사랑이며 실천하는 보람이 될 것 같다.
수많은 젊은이의 평생 가약을 맺어 준 백악관 예식장이 또 다른 젊은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파크뷰 백악관으로 태어난다.
중곡4동을 키우는 요람 같은 공간이다.


하나은행
WORLD
DUNKIN'
kt
3F




191

주민자치회 손재표 위원

청춘의 꽃을 피워낸 선한 영향력의 힘.
한 편의 영화같은 요리사의 인생 미담.

중곡4동엔 25년째 달리고 있는 씩씩한 오토바이 한 대가 있다. 젊은 시절 패기 하나로 서울에 상경해 중화요리집 배달부로 일하던 손재표 위원은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으로 새 삶을 시작했고, 다시금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의 바통터치다.



19세 배달부의 인생역전

손재표 위원님은 중곡4동에서 25년째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시작이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하죠. 제가 19살에 권투선수가 되고 싶어서 해남에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중곡동에서 중화요리집 배달부로 일했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하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손님들도 꽤 많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얼굴을 익힌 여자 손님이 골목길을 쓸고 계시기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이 기억해 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가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조그맣고 눈이 부리부리한 배달부 있죠?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네 가지만 일 끝나는 시간에 그분이 갖고 오게 해 주세요."라고요. 조그맣고 눈이 부리부리한 배달부가 바로 저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주문입니다. 그 배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달을 갔더니 얼마 전 인사했던 사모님과 남편 되시는 사장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제 신발과 양말이 다 젖었는데 그 댁 거실의 하얀 카펫을 밟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카펫은 빨면 되니 어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울컥했죠.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장님이 난데없이 4천만 원을 줄 테니까 중화요리집 하나를 차리라는 거예요.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죠.

신뢰를 바탕으로 어엿한 사장님이 되다

손재표 위원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큰돈을 빌려준다고 하시니 매우 고맙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어주고 호의를 베푸니 굉장히 놀랍고 감사했죠. 당시 제가 배달부로 한 달에 20만 원을 벌 때였으니, 4천만 원은 상상도 못 할 큰돈이라 고민 끝에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중화요리집 개업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첫 번째 중화요리집을 개업했습니다.

비록 큰돈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선물 받으셨네요.

맞아요. 그분들로부터 받은 신뢰는 평생 잊을 수 없었고, 힘들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됐죠. 그래서 한 번쯤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극구 사양하세요. 그런데도 한 번씩 마주치면 제가 동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다니는 것을 무척 흡족해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흡족해하실 만큼 손재표 위원님은 지역에서 청소년육성회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시작하셨나요?

부끄럽지만 제가 대원고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배달부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과정을 아시는 선생님들이 자리를 마련해주셨죠.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어떤 일이든 한 우물을 파면서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철학을

전해줬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질리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다시 도전할 기운이 생기니 꼭 운동하라는 이야기였죠. 제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권투를 했던 경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에게 귀감이 된 짜장면 한 그릇

손재표 위원님의 활동 중에 '찾아가는 짜장면 데이'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육성회 활동으로 중곡4동 파출소와 인연이 깊습니다. 언젠가 중곡4동 파출소 소장님이 퇴임식을 하게 됐는데, 퇴임식 이벤트로 '찾아가는 짜장면 데이'를 제안했습니다. 중곡동에 사시는 어르신 중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짜장면을 만들어드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주민센터에서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서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만들어 대접해드렸습니다. 8개월 동안 짜장면 데이가 이어졌습니다. 짜장면 데이는 어르신들 외에도 장애인, 아동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짜장면 데이를 이어가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짜장면 데이는 교회 내 아동들에게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짜장면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자 아이들이 어찌나 재미있어하는지요. 그리고 다 만든 후에는 함께 짜장면을 먹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행복해집니다.

힘들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지였는데 가정집이어서 가

스 불도 약하고 장비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라 행여 끓는 물이 쏟아지거나 다칠까 봐 신경이 곤두서고 조마조마하며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요리가 어려운 공간에서 짜장면 50그릇을 만드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신 손재표 위원님의 노고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육성회와 더불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해 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곡4동의 아이들에게 중식이든 양식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레시피 하나씩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있게 만들어 낼 나만의 요리 레시피를 갖게 해주는 거죠. 요리하는 즐거움과 더불어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19살 제게 자신감을 선물해주신 그분들처럼 저도 청년들을 응원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로 하루 100㎞ 넘게 달릴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손재표 위원. 그는 열심히 살아온 만큼 앞으로는 삶의 여유를 느끼며 자라나는 청춘들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한다. 누군가의 선한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여린 청년들에게 그 힘을 물려주려는 손재표 위원의 아름다운 계획에 박수를 보낸다.

손재표 위원




Sharing City
Seoul
나눔카 Car-S

주민자치회 이희진 위원

‘응답하라 1988’의 중곡4동 버전.
쌍문동이 아니라, 중곡4동에서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분이 있다.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였다가, 현재는 이웃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이희진 위원.
마을살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편의 일일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이희진님과의 인터뷰는 2020년에 진행했고,
현재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이웃 간 정으로 마음 풍요로운 이희진 위원

"언니들이 심부름꾼처럼 저를 부려 먹어요. 하하하"

애교 섞인 불만을 시원스럽게 던진다.

언니들 플러스 모임을 처음 만들었고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다. 2016년 가을부터 마을 일에는 발 벗고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해 왔고 올가을에는 조심스럽지만 작은 음악회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장애아를 둔 엄마들 모임 '언니스'에서 시작하여 마을계획단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웃만들기 사업으로 '언니들 플러스' 활동 중이다.

정이 넘치고 배려도 많은 찐한 이웃들이 든든한 자산으로 보인다.

'언니들 플러스'는 어떤 모임일까?

타이타닉 영화 전주에 나오는 감성적인 악기 소리에 빠졌다.

그 '틴휘슬' 악기를 연주하는 엄마들 모임으로 처음 시작은 2016년 가을, 장애아 엄마들 7명의 모임 '언니스'였다.

복지관에서 장애아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엄마들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힐링이 필요했다. 같이 교육 듣는 엄마 중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 지금의 모임으로까지 발전할 계기가 되었다. 중간에 4명의 엄마는 아이들 케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고 소문 듣고 들어온 동네 언니들이 들어오면서 '언니들 플러스'로 이름이 바뀌고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악기도 달라졌다. 시작부터 2018년 봄까지는 복지관이나 긴고랑축제 때마다 '틴휘슬'로 공연을 했다. 피리와 같은 모양의 악기로 크기가 다양하고 구멍이 6개밖에 되지 않아서 쉽게 생각했지만 만만하지는 않았다. 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틴휘슬은 작은 것이지만 크기

가 클수록 울림통이 커서 멋진 소리가 나는 매력적인 악기다.
2018년 가을에는 플롯으로 바꾸게 되었고 우쿨렐레도 같이 하면서 지금처럼 플롯 팀 5명과 우쿨렐레 팀 5명이 되었다.
2019년, 어린이대공원에서 마을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는데 언니들 플러스팀도 당당히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두 팀이 다 나가지만 플롯 팀은 연주 위주로 하고 우쿨렐레 팀은 연주하면서 노래를 해서 플롯 팀 연주할 때도 뒤에서 같이 합창해준다. 지금껏 1년에 최소 한두 번밖에 공연을 못 했지만,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
작은 악기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로 마음이 모이는 그 순간이 함께 나누며 사는 기쁨이 느껴진다.

마을계획단으로 참여해 만든 사업들

아들이 장애가 있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학교 주변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니 거리가 멀어지고 학교에 활동 보조가 있어서 그때부터 동네일을 하고 싶어졌다.
복지관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주셨다.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원하는 게 그런 거 같은 거니까 한번 만나 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상담했더니 본인의 생각이 딱 맞았다.
“마을에서 내 주변의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우리가 하는 거!”
“어? 그럼 좋은데? 이런 게 정말 주민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7년 가을에 마을계획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두드러지게 행동

하지 않았다. 같이 일할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했다. 마을 행사할 때 같이 찾아다니고 같이 있어 주는 정도로 도움을 줬다.
마을 총회를 거치고 2018년도 예산을 받으면서부터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동안 크게 움직였던 사업들을 몇 가지 설명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네들이 다 쓰면 되는 거고 차상위나 저소득층 계층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틈새계층이 너무 많아요. 의료보험 천원 더 내는 거 때문에 거기서 딱 잘려서 지원도 못 받고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돌봐줘야 해요."

그래서 방학 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밥까지 먹이고 놀고 가도록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했는데 엄마들 반응이 좋았다. 작년에 여러 엄마가 이번 방학에는 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작년에는 긴고랑계곡에 잘 만들어진 나무데크에서 영화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 어른들 좋아하는 영화, 생각하는 영화로 나누어 모두가 누릴 수 있게 계획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말모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는 주민들이 100명이 넘게 와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작년과 재작년에 두 차례 뻥튀기 공원에서 음악회도 했다. 뻥튀기 공원은 17년, 18년도에 중곡4동 내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를 찾아보자는 사업을 하던 중에 알게 된 곳이었다. 의도는 멋진 가을 풍경과 어울리게 한 번쯤은 품위 있는 클래식 음악회를 하고 싶어 준비했지만, 현실은 트롯트가 흥도 많고 주민들 반응이 힘찼던 음악회였다.

"지금은 광진구에서 하는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을계획단은 어차피 1년 과정으로 지원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웃 만들기는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이웃 주민들과 가까이 한번 가보자는 의미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마을계획단을 했었어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더 친숙하게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올해는 이웃 만들기를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넓혀간 거예요."

살고 싶은 곳에 산다

이 위원은 어릴 때부터 중곡동에서만 살았다.
집 앞에서 시작해서 동네 친구들이랑 오빠들이랑 맨발로 동네를 다 돌며 놀았다. 해 질 녘이면 이집 저집에서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뛰어다녔다. 10대 초반까지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정말로 '응답하라 1988' 드라마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큰아이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작은아이 키우면서는 너무 삭막해졌다며,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과 그렇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진정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결혼하고 영화사로에 있는 한 빌라에서만 20년째 살고 있다. 같이 사는 이웃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이사를 못하고 있다. 아이들도 언니들 플러스 회원인 그 언니들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인 줄 알고 이사가면 언니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 정도이다.

명절이면 언니들한테 미리 전 부쳐서 대접해 먹이고 전을 부친다. 빌라 앞에 평상이 있어서 작년 초까지도 저녁 시간이 되면 밥 하나씩, 반찬 하나씩 들고 나와서 평상에서 엄마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다. 아이들도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서 쫓겨나면 아랫집에 내려가 있다가 한참 있다 아랫집 아줌마가 애 데리고 올라오기도 한다.
더욱이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다. 밤 10시에 장구치고 플롯 연습을 해도 동네에서 아무도 얘기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동네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다.

중곡4동 좋은 점을 이렇게 말한다.
"정이 많아요. 삭막하지 않고 남을 좀 더 생각해주는 분이 많고 남을 배려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정이 많은 살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잘해야 좋은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법인데, 남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돌린다.

이웃에게 행복을 더 드리고 싶어요

마당발 이희진님은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자격증 따는 게 취미여서 새로운 분야의 공부에 도전하고 있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나온 사업 중에 동화구연 강사 3급이 있어 열심히 교육받으며 준비하는 중이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 앞에서 따뜻한 마음과 충분한 감성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이희진님의 모습이 그려진다.

또 하나 작은 소망은 같이 활동하는 언니들과 '거리공연' 하는 날을 꿈꾸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데크나 새로 만들어진 광장, 어디든 요즘 이 위원 눈에는 언니들 플러스가 버스킹 할 공연장만 눈에 들어온다.
운이 좋은 어떤 날, 플롯과 우쿨렐레로 연주하는 '언니들 플러스'를

만난다면 기꺼이 박수치며 응원할 수 있겠다.



이희진 위원


195-1


민들레 씨앗으로
마음숲을 이루다





주민자치회 김형우 위원

고고하게 마을 살리는 사람.
마을에서 고고학자를 만나본 적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고고학자는 영화속에서만 만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고고학은 왠지 거리감이 있다.
중곡4동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고고학을 사랑하는 사람. 김형우 위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은 회사 하나하나가 마을과 함께하는 꿈

김형우 위원은 중곡4동에서 40년 넘게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예정이다. 마을계획단 활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위원이며 <공방 카페 더 궁금>을 운영하는 김형우 위원은 고고학자이다. 고고학을 친숙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강의와 카페 운영을 하고 다른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다. 색다른 분야의 마음으로 바라본 중곡4동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방 카페 '더 궁금'이 궁금해요.

공방 카페 '더 궁금'에서는 미술품 감상을 하며 질 좋은 커피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긴급 돌보미 공간 제공 및 각종 동아리, 모임 등을 위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주인장의 철학이다. 카페 이름의 궁금은 흔히 알고 있는 궁금증의 궁금이 아니다. 활 궁(弓), 거문고 금(琴)이라고 한다.

이 공방에서는 친환경적인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도자기 공방 같은 데에 가깝죠. 어차피 커피 찌꺼기도 가루인데 그렇다면 이 가루를 가지고 3D프린터에 넣어서 뭔가 제품을 만들면 친환경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센터 4층 카페 '휴'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던 김형우 위원은 코로나19로 카페 휴가 문을 닫으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거기가 사실은 9시가 되면 열어서 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젊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면서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럼 이참에 한 번 이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카페를 만들면서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로 만들었어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공급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잠정 중단됐는데 같은 자치위원인 이희진 님이 이끄는 언니들플러스 팀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악기 연주 모임을 가진다. 연주 연습도 하고 수다도 떨며 간식 먹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가을에 다시 이곳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또 중곡4동 16통 통장 일을 본 지 오래된 정옥금 통장님이 주최하는 '차와 만남'이라는 모임에서는 선생님을 모셔와 회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했다. 차를 우려내어 따르면서 천천히 음미하고 함께 즐기니까 확실히 맛이 틀리게 느껴진다는 일종의 다도를 했다. 다음 모임도 여기서 진행한다고 한다.
김형우 위원 역시 고고학 관련 강연을 계획하여 TV도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공방 카페가 만들어진 배경이 고고학이라고 하던데요

김형우 위원의 고고학 사랑은 아주 오래되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KBS에서 원탁의 기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 그 후 중곡동 종점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슐리만의 트로이 발굴기>를 보고 '아! 고고학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12살 때 했다. 그리고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 아프리카대학(SOAS, University of London)과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했는데 유럽에서 대두되고 있는 관점이 인류학적 고고학 그리고 고고학자의 사회참여라는 것을 알았다.

"제가 생각하는 고고학적인 사회참여라는 것은 '우리 곁에 생활화된 고고학을 만들자' 그래서 '고고학을 좀 더 가깝게 만들자, 친숙하게 만들자!'였어요. 제가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냥 고고학자로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나온 것이 이 '공방카페 더 궁금'이에요."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하신 결과가 지금의 마을활력소의 모습인가요?

처음부터 마을계획단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주민자치회가 들어서면 그곳에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마을의 일을 마을 사람들이 결정하자는 취지였고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과 다르게 특색있는 마을로 만들자는 좌우명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중곡4동의 주민센터 내 마을활력소 공간을 설계하고 공간 배치하는 사항들을 정하는데 김형우 위원이 참여했고 주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주민센터 지하와 1층, 3층 공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마을활력소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할 때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카페 '휴'와 도서관이 같이 공존하도록 얘기하면서 지금처럼 구분을 짓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카페를 못 집어넣은 이유가 주변에 카페들이 있는데 왜 그걸 하냐,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상업적 목적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었던 거죠.

3층은 원래 설계대로 301호와 302를 터서 중간에 가림막으로 막고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림막을 걷어내고 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랑울림 이름 정할 때 다수결에 의해서 고랑울림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했는데 아무래도 긴고랑에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고랑울림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의 눈으로는 다른 모습도 보였다. 고랑울림을 줄이면 고울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고울리라는 단어는 중국발음으로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마침 광진구와 중곡4동은 고구려를 강조하고 있으니 의미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마을을 위한 다양한 계획으로 문화유산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 예정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에 관련되는데 현재는 중곡동과 광진구에 연관된 것부터 시작한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차산성에 올라가서 놀았는데 아차산성이 고구려랑 연관돼서 고구려 쪽으로 고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도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한 축은 아차산성 관련 고구려 쪽을 연구한 거고 또 다른 한쪽은 유럽 아서왕 전설 원탁의 기사와 관련된 고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시기가

기원후 5, 6세기로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차산에서 출발해서 망우리까지 보루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보루들을 연결해서 아차산 능선 따라 연결해서 배열로 보면 마치 스칸디나비아반도같이 생겼어요. 지형을 따라 보루가 설치돼 있고 그 지형이 지금도 보루가 있는 곳에 송전탑이 들어서거든요. 결국에는 그 지역 자체가 요충지였고, 제일 좋은 최적화된 자리라는 거죠. 또 대부분의 보루가 헬기 착륙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중곡4동이 굉장히 좋은 곳이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요.

9월 하반기부터 강연도 시작합니다. 우리 곁에 생활화된 고고학을 만나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고고학이 말하다' 그래서 시리즈로 고고학 커피를 말하다, 고고학 차를 말하다, 고고학 나무를 말하다, 고고학 채소를 말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장소는 여기 공방 카페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참가비는 3만원 내고 5회나 6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형우 위원의 풍부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사업들로 구체적인 설계까지 나왔다. 중곡4동 전체를 보는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작은 기업들 하나씩이 모여서 연합해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 회사를 세우자는 꿈이다.

저는 중곡4동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단순히 잘 사는 것 뿐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회복지가 좀 더 갖춰줘야 하는데 아직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민간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우 위원의 열정과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중곡4동에 많이 계시기를 바란다. 마을일을 통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기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형우 위원


긴고랑을 사


하는 사람들의모임
홍보관
"입차전용"

주민자치회 윤덕조 위원

화양동 우체국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골목길 두 블록을 지나면 짙은 회색 간판을 마주하게 된다. 파주 장단콩 전문 판매점인 '우리동네손두부.'
가게 한편에는 <신복순 커피>, <북적북적 우엉차> 좌판과 보온병, 커피통이 놓여있다. 여느 음식점 커피자판기나 봉지 커피와는 얼핏 봐도 수준이 달라 보인다. 퉁퉁하신 분이 혼자 주방에 계신다. 오늘 인터뷰를 하실 윤덕조 위원님을 대뜸 알아볼 수 있었다.



영업시간이 아닌가요?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은 딸 포함 식구끼리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못 하게 하니까 직원들도 못 나오게 합니다. 3, 4, 5, 6월 영업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한 달 하다가 요즘 또 2주 못 하게 하거든요. 아주 초주검이죠. 어쩌겠어요? 세월이 이런데…. 그래도 잠은 잘 자요. (웃음)

사업이라는 게 꾸준해야 하는데, 물건도 제때제때 대주고. 특히, 우엉차 사업 같은 경우도 단골들이 찾을 때 잘 대주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신 거네요. 이렇게 넓고 깔끔하게 해 놓으셨는데 영업을 못 하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손두부 전문점이 이렇게 쾌적한 곳은 못 봤습니다. 임대료도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저도 화양동은 처음이고요. 우리가 하기 전에 마을공동체지원단 사무실로, 독서포럼 등을 하던 곳이었어요. 저쪽 공간에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운영하셨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시기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으로 하고 싶다고 의견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가게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시군요? 그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란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일자리 사업도 이곳과 중곡4동의 공

동작업장 두 곳이에요.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형으로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지요. 노령연금수급자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은 소위 시장형이에요. 일해서 수익을 내고 이 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서 급여가 정해집니다. 재산과 관계없이 60세만 넘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수익이 늘면 임금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두부의 경우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6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400만원은 설비보강이나 유지관리비에 쓰이죠. 즉 수익의60%는 무조건 인건비로 나가야 해요.
어르신이 30명이 교대로 일을 합니다. 매출이 늘면 그만큼 1/n 씩 해서 시급이 올라갑니다. 어르신하고 일해서 돈 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은 위험부담이 있죠. 재료비, 운영비, 경기에 따른 매출의 등락, 요즘 같은 상황이 모두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임대료 내가면서 이런 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중곡4동 공동작업장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화양동 사업장)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도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곳에서 60명 어르신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곡4동 공동작업장에서는 우엉차, 누룽지, 식혜를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17년 7월부터 해왔습니다.
우엉차의 경우 제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품 나올 때까지 9번을 덖는 공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일반 작업을 한 우엉차는 200g에 7~8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르신들이 하니까 15,000원에 팝니다. 정석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국 통합 쇼핑몰에서 온라인판매도 하고요. 각종 행사 때 좌판 놓고 팔기도 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또한 많

이 줄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중곡4동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0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르신 190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매출과 수익을 많이 올려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수행기관은 저희는 매년 등급판정을 받아요. 1~3등급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하는 계약이 끝나버리게 되죠. 다음 해에 수행기관 위탁을 못 받게 돼요. 저희는 처음 5단계에서 시작, 2018에 4등급, 2019년에 3등급 받았어요. 올해 2등급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수익이 나야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하니까 식자재값이라도 건지려고 식구끼리라도 하는 거예요. 고용인원도 30명은 채워야 하고요. 최저임금에다가 수익을 늘려서 임금이 올라야 평가를 잘 받게 되니까요.
식당에 30명이면 많아 보이지만, 1인당 이틀에 3시간씩 한 달에 3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 직원으로 환산하면 5~6명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집사람이 모 수행기관에서 전담으로 일을 2년간 일을 했어요. 그 후 구청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이 올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마을 사업이나 하자고 16년 8월부터 몇 개월 준비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노인 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가 났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지원했더니 두 가

지가 다 된 거예요. 장소도 전담으로 일하던 광진구 중곡동으로 자리를 잡았죠. 처음에는 저는 옆에서 도움만 주다가 18년도부터는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커피를 여기서도 팔고 있을 정도입니다.

커피로스팅 한 분. 반찬가게 한 분. 한 분에게 커피 로스팅 전문가 교육을 1년 시켜서 가게 운영을 하도록 도왔죠. 지금은 우리도 같이 팔아줍니다. 또 한 가정은 반찬가게 운영을 하도록 도왔는데 지금은 재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졸업한 셈이지요.

생계 도움만이 아니고 가끔 상담도 하고 선도 보게 하고요.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두 분 다 자주 찾아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고요. 불우가정을 돕는 게 교회 역할이라는 목사님 목회 철학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일자리 사업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일자리 한다고 하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정부 돈 빼먹거나, 노인들이 시간만 보내고 돈을 받는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사실 일자리 법이 만들어진 건 2005년입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대는 옛날로 치면 50대에요. 힘과 시간은 남아도는데 일자리나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여서 소통도 하고 최소한의 소득도 만들고, 노인이 최소한의 소비는 하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2005년도에 법을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안전교육협회도 이때 생겼

어요. 이런 걸 몰라줄 때 조금 섭섭합니다.
우리 작업장에는 육체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맛이 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광진레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2016년부터 중곡동에 사무실 내고 시작한 게 '광진레츠'입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연히 두루넷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웃해요.' 라는 광고 딱 한 줄이 눈에 띄더라고요.
호기심에 가봤어요. 모임 장소가 대전시청 대강당이었는데,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각자 잘하는 반찬 한가지씩 싸서 오라는 거에요. 우리는 여섯 살, 세 살, 막 돌 지난 막내둥이 셋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 넓은 강당에 몇 가정이 안 왔더라고요. 아주 썰렁했죠. (웃음)

주최한 분이 "엄청난 전화가 왔었다. 그런데 막상 몇 가정 안 왔다." "앞으로 대전 공설운동장을 꽉 채울 수 있다. 도와달라.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나는 40대였고 그분은 30대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해서 참석했는데 매번 경매 이벤트와 물물교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쓰는 물건 내놓고 경매에 부치고. 딴사람도 내놓고 거래해서, 내가 팔면 플러스 얼마, 구입하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때 단위가 두루였는데요. 1두루, 1,000두루 이런 식입니다. 5천원은 5000두루. 두루를 통해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있는 어떤 부인은 "내가 아기를 반나절 봐줄 수가 있음. 2만두루" 피아노 잘 치는 분은 "5만두루에 피아노 가르쳐

줌" 어떤 분은 김치 담가서 가지고 와서 '3만두루'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년 안 돼서 약 1,000가정이 모였어요. 대전 공설운동장에 모였는데 엄청났습니다. 1,000가정이니까 가족까지 몇천 명 되었지요. 전화가 오고 강의 들으러 오고, 병원도 있고 식품점도 있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가서 봉사하면 돼요. 음식 나눠 먹고 소통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한밭레츠였습니다.
한때 한밭레츠가 뉴스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이후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이사했습니다. 이때 "서울 가서 이런 활동 사업을 해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란 제의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르신 일을 하니까 화폐 계통의 일을 하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밭레츠가 실제 경제 활동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네, 경제활동 하는 건 아니죠.
육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애들 옷도 돌려 입고, 애들도 돌봐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물품도 나누어 쓰고. 돌려쓰면서 친해지고 급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좋았던 거지요.
뜻맞는 사람들은 소모임을 따로 갖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면서요. 남자들은 가끔 모여서 술도 한잔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광진레츠를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지금 만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 고기, 등 기호식품을 제대로 먹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현지구입 등을 통해 저렴하게 먹도록 할 수 있거든요. 주방도 다 갖춰져 있고, 만찬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멋진 부활을 꿈꾸는 중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어르신일자리사업, 한밭레츠에서 시작된 새로운 화폐 이야기 등이 흥미로웠습니다. 광진레츠에서 많은 분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름
다운






녹색
주차

운룡도서관 이명우 관장

우리 동네 작은 보물, 운룡 도서관

공간이 아담하고 사면은 책장들로 들어차 있다.
책 볼 수 있는 테이블과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썼던 나무 책상과 의자, 그 위에 양은 도시락과 반찬통이 추억을 일으켰다. 왼쪽 작은 공간에는 전자 박물관을 만들려고 수집한 책과 공학기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과 아늑하게 지내시는 관장님을 만났다.

저는 1945년생이고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그전에는 사실 고등학교 때 역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셨어요.
큰 회사 다니다가 애니라인테크놀러지라고 개인 사업으로 제조업을 하다가 한 3번 정도 실패하고 4번 정도 하다 보니까 60이 벌써 넘어갔지요. (웃음)

7년 전까지는 현재 도서관 자리에서 사업을 하셨다. 특허제품이었는데, IMF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사업을 접으려고 했지요. 그때 사무실에 책이 1,500권이 있었어요.
집에도 그 정도 있었거든요.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도서관을 해보자! 문화 사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5년 전에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했지요.

그렇게 시작한 운룡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일까?

우리 도서관은 역사 전문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체 15,000권 도서 중에서 역사책이 3,000 권이에요.
구하기 힘든 고서들을 제가 수집했는데 200여 권이 돼요.
특히 100년 이상 된 역사 고서들이 많아요.
역사 도서는 자비로 경매에서 사거나 중고서점을 많이 돌아다녀서 구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운룡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의와 포럼을 많이 개설했다.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나서 유명해진 역

사 포럼은 현재 100회가 넘는다.

포럼은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5년 7개월이 되었지요. 포럼은 한번 듣고 나면 내용이 좋으니까 포럼 문자를 보내면 부산이나 창녕에서도 와서 들어요. 30명 정도 오는데 자리가 없는데 어떨 때는 50명도 와서 서서 듣기도 해요.

역사 인문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무료 강의도 진행중이다. 포럼 강사분들은 유명한 소재학 박사, 박정학 박사, 이용수 판소리 명인 등이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데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다.

수강생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도 12월까지 강의해 줄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녹차로 박사학위 받은 유수현 박사와, 전통 의술로 치료하는 씨앗도사 김형동 교수, 국제 화가협회 회장이신 김기홍 회장, 노인의 성 문제를 강의하시는 김기영 교수가 약속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강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역사포럼을 못해서 역사탐방을 시작했어요.
이번이 4회째인데 한 달에 2번 문화유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판소리, 바둑, 음악, 영화가 있는 마을 공간, 운룡도서관

저희가 문화 예술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판소리 명인도 불러서 공연했는데 참가자들이 40명씩 왔어요. 어떤 때에는 거문고 연주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합니다. 그리고 바둑동호회도 한참 했었지요.
음악동호회는 지인 중에 음악 잘하시는 분이 LP판 5천 장을 보유하

고 있어요. 그분이 와서 음악에 대해 해설해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요.

운룡도서관의 고민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을 줄 알았어요.

작은도서관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면 1년 넘기기 힘들다고 한다. 광진구에 작은 도서관이 34개 있다. 34개 중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7개, 주민센터에 14개, 개인 도서관이 3개로 파악된다.

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년에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임대료와 기타 비용들이요. 2/3는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후원회에서 도와주고 희귀한 역사 고서들 복사해서 판매하는 걸로 간신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후원회가 있는데, 한 달에 5천 원 내는 거예요. 현재 70명 있는데 어떤 분은 1만원, 어떤 분은 5만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주로 서민들이 감동해서 후원을 해줘요. 임대료 걱정 안 되게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운룡도서관이 주민에게 바란다

정말로 주민들이 잘 이용해 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평일에 3~4명이 와서 책 빌려 가요. 주로 학생들이 역사책을 빌려 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보고는 그냥 가요. 도서관인데 뭐 이래? 하는 반응이에요. 헌책방인 줄 알았다고 하고 골동품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나 주민들은 공공 도서관이나 서울 도서관 아니면 학교 도서관 같은 큰 데만 갑니다.

광진구 사람들은 여기 도서관이 있는 줄 알면서도 형편없는 조그만 도서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다른 데나 주민센터 도서관만 가도 여자분들이 안내하고 시설도 깨끗하니까 좋아하지요. 여기 도서관 관장이 노인네라 거부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하지만 시설이 안 좋아도 좋은 책들이 많고 특히 포럼이나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와서 방명록에 적어주면 포럼 때 문자 다 보내줘요.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명우 관장님은 역사와 고고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삼국시대 기와나 가야 시대 유물 등 선조들의 옛 정취가 묻어나는 소중한 물품들을 간직하고 계신다.
현재는 단군에 관한 책을 쓰고 계시고 기존에도 우리 고대 과학기술에 관한 책과 경제, 등산의 즐거움에 대한 저서들도 내셨다.

운룡도서관이 시설 개선이나 무료 임대료 같은 작은 소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호수 목욕탕
T.444-3111
3-31


요 금 표
컷트 7,000원
염색 7,000원
학생 6,000원
드라이 4,000원
H.P 010-9637-7277
목욕탕
이발합니다.
건강생활 10계명
금연건물






목
T.444
보안등
중국4동
771
금연구역

한살림모임방
안명자, 진길순 활동가

더불어 만들어가는 한살림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마을 커뮤니티 단체 중에서 우리 곁에 안전한 먹거리로 친숙한 한살림을 찾았다. 중곡4동 아차산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광진지구 사랑방에서 광진지구위원장(조합원대표) 자원활동가 안명자님(이하 '안')과 광진지구 조직활동가(실무자) 진길순님(이하 '진') 두 분을 만났다.



한살림의 사무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진 : 한살림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대부분이에요. 전국에 70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큰 단체이지요. 서울에 있는 5개 지부 중에서 이곳 동서울지부의 광진지구방 같은 작은 사무실이 지역에 있습니다. 대의원회의나 매달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 등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광진지구 사랑방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서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안: 예전에는 저희도 모일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놀자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거기가 장소도 좋고 놀자 도서관이 활동하는 내용이 한살림과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진: 저희가 매장을 가지고 있고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물품만 알고 계실 텐데요. 물품 안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있어요. 기본 의제가 밥상 살림, 농업 살림, 생명 살림입니다.

한살림 모임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 사무실로 업무적으로도 사용하고 커뮤니티 열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간을 12개 모임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쿨렐레, 책 읽기, 만들기 모임 등등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사용하도록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익숙해져야 편하시니까 모임의 대표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지요.

진: 예를 들어드리면 강동지구방에 '청년 식탁'이라고 해서 비조합원들인데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혼자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공간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 저희 지구 모임방들은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 또는 이익을 낸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공간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모임으로 특정시간을 고정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면 조합원 모임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활동 사례 한 가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안: 'OO아이들'이라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시설에서 독립할 때 도움을 주자는 뜻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행사를 통해 후원금을 모읍니다.
저희 매장 앞에서 조합원들 상대로 벼룩시장도 열어요. 그 기금을 연말에 현금으로 보육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해서 지구에서 지원을 못 드리고 지부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한 번은 하기로 운영회에서 결정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살림은 물품을 생산공동체에서 공급받으신다고요.

진: 저희는 유기농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유기농업의 특성상 개인이 가진 땅 한 필지만 가지고 유기농업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경우를 관행농이라고 합니

다. 양쪽 농지가 관행농이고 가운데 농지가 유기농인 경우, 바람이 불면 유기농지로 농약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물품이 함께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생산자들이 자주적으로 정기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어떻게 계속 유지되는지요.

진: 사실 농사는 벌레와 병충해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유기농업은 더 어렵고요.
그분들의 목표도 '땅을 살리자'에요. 땅을 살려야 사람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생산자와 회의하여 물품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안정된 가격이 보장되는 것이죠. 생산량에 따라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도 있고 유통단계에 따른 제값 받기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구조가 한살림 농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안: 저희는 생산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생산자가 기후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올해는 봄에 냉해, 여름 긴 장마, 가을 가뭄 등으로 기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해 따로 복구 지원 모금 운동으로 손길을 보탰습니다.

진: 생산자는 판로와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몰두하고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는 물품을 소비할 수 있지요.

마을과 연계하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 마을공동체에 있는 여러 모임 중에서 우리와 같이하면 좋을 모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인 기혼여성 가구들의 '건강한 밥상모임'이나 '몸 살림', '환경 모임' 등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 2020년 올해 의제가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밥 운동의 사회화를 위한 먹을거리 돌봄' 관련입니다.

진: 그동안도 환경에 관련된 의제 활동을 가지고 여기서 대중강좌를 연다든지, 생산자분이 오셔서 요리 강습도 하시고 우리 단체의 목적과 맞는 다양한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열린 강좌이니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쳤으나 올해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한살림도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지와 함께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살림은 공간대여와 열린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로 활동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달라고 하셨다.









긴고랑을 사랑하는 모임
백임선 회장

지역 사랑으로 심은 꽃씨의 힘
백임선 회장, 53년 중곡동살이와 긴사모의 활약을 말하다

중곡동에서 53여 년을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이라면 단연 백임선 회장 아닐까? 전쟁이 끝나고 황무지 같았던 중곡동에 나무를 심고, 골짜기에서 빨래하고, 마을에 꽃을 심었던 백임선 회장은 중곡동 곳곳에 자신의 손길이 닿았던 연유로 마을에 대한 애착이 뿌리깊다.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마을을 애정으로 보듬어온 백임선 회장을 만나 그의 포근한 '중곡동 인생사'를 들어보았다.



전후시대, 허허벌판 중곡동에 터를 잡다

백임선 회장님은 어떻게 중곡4동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나요?

1957년에 두 살 터울 형과 외사촌 형을 따라 중곡동에 발을 들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53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중곡동 전체에는 가옥이 3채뿐이었고 온통 황무지와 개천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산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었고, 저희는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다 땔감으로 쓰며 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저와 같은 백씨 성을 가진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평양에서 홀몸으로 피난 오신 분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같은 백씨인 저를 피붙이처럼 느끼셨고 가족처럼 잘 챙겨주셨죠. 미군 부대에서 일한 것도 그분 덕분이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가족과 터전을 잃어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고, 또 그만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했기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간미가 끊이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기억합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산에 나무를 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 근처 용마산, 아차산에 나무를 심는 행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하루 일당이 700원이었는데 저는 집에 와서 세어보면 항상 일당이 900원인 거예요. 함께 일한 형들은 계산이 잘못됐다고 투덜대기 일쑤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체 인원 중에 꾀 안 부리고 열심히 한 5명에게만 일당을 900원씩 준 거였어요. 무슨 일이든 성심껏 하면 인정받

는다는 이치를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긴고랑 마을을 사랑하는 '긴사모'

한때 황무지였던 중곡동에 사람이 차츰 몰려들면서 마을의 정취가 살아났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무렵을 백임선 회장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중곡동에도 사람과 집이 늘기 시작했어요. 청계천 양변에 있던 무허가 판자촌이 헐리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일부가 간뎃골 주변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간뎃골은 어떤 곳인가요?

당시 중곡동 주변 산에는 굴이 많았습니다. 구리, 아연 등을 캐내는 광산 굴이었는데 5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죠. 이 굴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동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굴에 드나들기 위해 모여들던 골짜기 중 용마산과 아차산 가운데 골짜기를 '간뎃골'이라 불렀습니다. 간뎃골 주변 냇가에 모여 빨래도 많이 했고요. 지금 '간뎃골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 간뎃골 중심으로 작은 판잣집들이 생겨났고, 중곡동의 지명 긴고랑로의 '긴고랑'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이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그 시절에 광나루에서 동대문까지 기동차가 다녔습니다. 여름이면 가족 단위로 밀짚모자를 쓰고 광나루유원지로 나들이 오는 모습이 흔했죠. 광나루는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깊어 잉어·쏘가리 등 민물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중곡동 살이를 이어오셨기에 지역에 대한 애정도 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8년 전 긴고랑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긴사모'가 생긴 이유가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사모는 긴고랑로, 즉 중곡4동에 애정이 깊은 주민들의 모임으로 마을을 예쁘게 가꾸는 활동을 합니다.

긴사모에서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모아 대형 화분, 장비 등을 준비해 긴고랑로 길가에 꽃을 심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워내듯 마을을 예쁘게 키워내자는 마음이었죠. 긴고랑로에 예쁜 옷을 입힌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간혹 화분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긴 하지만 그대로 두면 쓰레기가 계속 쌓여갈 테니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죠.

그러한 긴사모 활동이 대외적으로도 차츰 알려져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정성이 통했는지 거의 매년 지자체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홍보관에 기록도 남겼고요. 이웃들과 한 가족처럼 어울려 지내는 중곡4동에서의 삶이 제겐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포근하고 꽃향기가 넘치는 중곡4동의 온기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새
빌
라
영화사로11길
Yeonghwasa-ro 11-gil
13
04948
556-2


LG

차와만남 정옥금

고운 한복을 입고 오셨다. 흰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가 단아하다. 옥빛 브로치가 눈에 띈다.
정옥금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인터뷰 내내, 어쩌면 '차'를 닮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복이 참 곱습니다. 직접 만드시나요? 또 평소에도 한복을 선호하시나요?

제가 바느질을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입지요. 같이 모여서 만들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집에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누구 옷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만 만드는 편이고요. 평소에도 잘 입고 다닙니다.

원래 손재주가 있으신가 봅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마을기업 하려고 미리 퀼트용 가방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천을 이어서 만든 수제가방을 들어 보이신다.)

이렇게 만들면 바로 눈에 띄이고 해서 참 좋아요. 나이 들어가면서는 함께 모여 이런 거 만들고 나누는 행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외에도 도자기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셨네요. 마을기업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십 년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옷은 내가 만들어 입었습니다. 통장으로 역할을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이때 다니면서 어르신들 보니까 간단한 바지나 옷을 여럿이 모여서 분업으로 지어드려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연장선상에 마을기업 운영도 있는 거죠.
누구라도 할 만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 지역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60년 됩니다. 한 살 때 저희 아버님이 여기 서울병원(당시는 정신병원으로 불렸다.)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1동에 살다가 4동으로 와서, 4동에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대한 인식이 좀 남달랐습니다.

60년을 사셨으니 아시는 분이 많아서 모두 인사하고 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곡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동네에 사는 친구가 없어요. 저 하나예요. 다들 이사가 갔고요. 간혹 외부에서 만나면 "너는 아직도 중곡동을 못 벗어났니?"하곤 합니다.
어찌하다보니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음)

이제는 준비하고 계신 마을기업에 대해 말씀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들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시지요.

이번에 제가 광진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와 만남'이라는 주제로 선정되었죠.
3년 전부터 통장직무를 하면서 무언가를 해보려 여러번 시도했었는데, 이제야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같이 통장 일을 하는 분에게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해볼래요?"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하셔서 대표제안자 3인이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주 제안자는 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시작이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10명을 기준으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맘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와 만남'을 하게 된 동기는 보통 사람들이 찻집에서 만나면 차 주문을 하고 후루룩 마시잖아요?
차를 다리고 우려내고 따르고 하는 과정들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누고 차를 마시며 음미하고 느낌을 교감하는 행위를 중시하는 거죠. 일종의 다도(茶道)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기도 아는 분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제로 모임을 했습니다. 장소는 이곳 'THE 카페 궁금'이었고요. 지난달 7월이었습니다. 현수막도 제가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열 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네 시간 정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이자고 했지만 다들 와주고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요.

주로 어떤 분들이었나요?

통장을 했던 분들 그리고 반장님들이셨어요. 중곡4동 지원관님도 오셨고요.
오셨던 분들도 이런 시연회를 해보니 "참 좋다"라고들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코엑스에서 하는 차문화대전에도 가보곤 했습니다. 도자기도 했기 때문에 도자기 전시회에도 가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곳에서 시연하고 많은 분이 참여하여 함께 즐겼다는 게 제게는 보람도 있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진행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선생님이 먼저 시범해 보이시고 참여한 분들이 나가서 그대로 실습하듯이 해보는 거죠. 모든 분이 차를 우려내고 따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여름에는 오미자차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차, 말차도 했고

요.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차와 맛이 다른가요?

그날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함께 즐기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차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더울 때 오미자차를 마시면 한꺼번에 마셔버리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한잔을 여러 번 숨을 고르며 마십니다.

말차같은 경우는 잎을 가루로 만든 것으로, 찻물을 우려 거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품을 마시는 겁니다. 가루녹차 또는 가루차라고 불러요. 말차(末茶)의 말은 한자의 분말(粉末) 가루를 뜻해요. 말린 잎을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 마시는 녹차 대신 말차는 잎을 아예 통째로 갈아서 마시는 겁니다. 이때 거품을 내는 것이 맛난 차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차들을 제조하고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중간에 김밥과 샌드위치도 함께 곁들이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임은 어떤 주기로 하세요?

이달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없이 우리끼리 할 거예요. 지난번 오셨던 분들과 추가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차에는 강정 만드시는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날 강정을 만들어서 경로당 등에 가져다드리기도 하고 나누어서 먹을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차와 만남"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듯이 차의 맛을 음미하는 것도 천천히 혀끝으로 조금씩 느끼는 거겠죠?

네, 차와 찻잔도 중요하지만 받침에 정성껏 올리고 다식도 곁들여 드리면 받는 분도 벌써 격이 다르게 받아드리게 됩니다. 같은 상품일지라도 어떻게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차 한 잔도 고급스러운 찻집에 가면 2, 3만원 하지 않나요? 그걸 응당 받아드리면서 우리는 구매를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차와 함께 하는 모임을 통해 일상에서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품격을 느껴보자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업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주민센터에 공간만 있다면 만들기, 즉 집에서 바지 등 간단한 만들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올해 사업을 같이하신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기투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계나 도구들이 있어야 하니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재료비도 꽤 듭니다.

퀼트로 하면 기계가 없어도 돼요. 다 손으로 꿰매는 거니까. 그러나 옷을 만들고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재봉틀 두 세대 이상은 있어야 하니까 이번 사업보다 공간도 커야 하고 비용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저 구상단계입니다.

젊은이들이 재봉틀을 많이들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애기들 옷도 지어주고, 홈쇼핑 방송에 보면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제 손주들이 생기고 하니까 딸과 함께 애기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이런 분들한테 제안하면 아주 긍정적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인터뷰 내용을 빨리 블로그에 올리고 글자화해서 홍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지역사회 마을기업들이 활성화된 곳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훌륭한 마을기업이 태어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 아들이 농업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효소 만드는 일을 함께해 본 경험이 있었고요. 우리 마을에서 '어슬렁 마을산책'으로 거기서 막걸리 만드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때 얻은 게 막걸리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다는 점입니다.

또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참 좋습니다. 경제나 사회 문화 과학이 발전할수록 옛것을 찾는 것도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수제 맥주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데 대해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 지원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저는 아이와 집안 살림을 맡아서 했거든요. 이제는 다 컸으니까 이렇게 맘 놓고 바깥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통장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기 16통이 비었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제가 원래 좀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계속해 보라고 하셔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에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내놓고 다른 분에게 넘겼는데 이분이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셨고 자연스럽게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통친회회장(28명 통장 모임의 회장)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차와 만남'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곡4동의 주민리더네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요?

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 사항, 이의제기 등에 관심을 좀 두셨으면 합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아직도 답보 수준이라고 느낍니다.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당장 문제 해결은 어렵더라도 상대의 얘기에 귀를 열어 듣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어디선가는 한 번쯤 검토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뎃골축제, 긴고랑축제 등 마을축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나름대로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좋은 행사지만 축제들이 너무 단순하고 특징이 없다고 보여요. 기획도 어느 축제나 똑같죠? 술 마시고 쓰레기 버리고 음식의 절반은 다 쓰레기로 만들고.
저는 이제는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뎃골축제'라면 '간뎃골축제'에만 있는 것, '긴고랑축제'라면 그 축제에만 있는 것,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 똑같잖아요? 부침개, 막걸리, 육개장, 두부. 난 식상하다고 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나마도 오는 사람만 오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 축제 정도라면 차라리 마스크를 사서 온 동네 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정도에 시기마저 같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은 한 주일에 한 번씩 행사가 열려요. 똑같은 걸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축제를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도 저녁 시간으로도 해보고 저녁이 곤란하면 토요일에 하는 안도 검토해보고 축제별로 차별화도 시도해 봤으면 해요. 간뎃골축제는 기존과 같이 어르신 위주로 하고 긴고랑축제는 젊은이들을 위한 순서로 구성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기회도 주고요. 피자파티를 하든가 스파게티 파티를 하든가.

중곡동 인구분포를 보면 50대 이상만 많은 게 아닙니다.

50대가 가장 많지만, 그 다음 많은 연령층이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축제 때마다 나눠주는 모자, 비닐 등이 집에 몇 개씩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센터에 대하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아는 사람들 극히 일부만 참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드나들기도 하니까 보이는 것이죠. 일반분들은 전혀 몰라요. 마을주민들을 위한 센터인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이겠지만요.

여유가 되면 “차와 만남” 행사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 계획하신 대로 하반기 행사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빽다방
·PAIK'S COFFEE·
봉봉과일야채
6000


67


만두국/전골용
11개 5,000
23개 10,000
왕새우만두
6개 5,000
TAKE OUT


맛닭꼬
Take Out
Mattacco Chicken
녹김막
두치걸
전전리
모해시
물골동
듬파동
전전주
VISA
파전

공동육아 김철영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지요.

대구에서 살다가 7살 때(79년)부터 중곡 4동에서 거의 40년을 살아온 김철영님은 '마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부터 어른이나 아이 구분없이 지금도 '마디'로 불린다. 공동체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내디딘 발걸음이 어떤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중곡4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려서 산 바로 밑에서 살아서 산이 가까워 좋아요.

애들도 제가 놀았던 곳에 같이 가서 놀고 제가 갔던 어린이대공원을 같이 가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 줄 얘기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점이 편합니다.

동네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별로 변한 게 없지만, 사람들은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긴고랑이 도랑이어서 사람이나 차도 잘 다니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그쪽이 개발되면서 변화가 됐고 예전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야! 누구 어제 술 많이 먹고 돌아다니드라" 어머니가 얘기하실 정도로 서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동네에 선생님도 사시고 하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지요. (웃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3년에 아이들 세 살 때부터 시작해서 둘째 졸업할 때까지 조합원으로 7년 있었고요. 이사장도 1년 임기로 두 번 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공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우리가 맨날 어른들에게 들었던 먼저 '인간이 돼야지'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었지요. 밥 잘 먹고 자기 생활 잘하고 아이들과 교류가 좀 더 많은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공동육아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놀고 아이들과 어떻게 놀 것인지에 더 신경을 씁니다.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그런 노동을 해가면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어린이집도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부모들과 소통도 잘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먹이고 있어요. 공동육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해서 지금의 어린이집들도 지금의 수준으로 올리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길 걷기' 마을공동체 사업이 궁금합니다.

마을은 어느 곳이나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같이 걸으면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만족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014년에 즐거운 어린이집과 산들어린이집, 학교, 마법방과후, 다른 어린이집들에 공고를 냈어요. 5개 정도 마을 산책길에 따라 나눠서 그때마다 자유롭게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어요. 주로 6, 7세와 초등학생들로 20, 30명씩.

긴고랑 쪽으로 넘어가서 아차산 쪽으로 내려오는 길, 아차산을 넘어서 구리시 쪽으로 넘어가는 길, 또 하나는 한강에 가는 길, 하나는 중랑천 쪽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는 한강으로 철새 보러도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자연과 사람과 마을을 같이 보는 프로젝트였어요. 물론 공동체 사업으로 지원 덕분에 항상 걷기 끝에는 아이들과 맛있는 걸 먹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걷기 좋은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했고 재미있었습니다.

단오 축제를 계속하셨다고요.

마을에서 꽤 큰 축제였습니다.

매년 단오 때마다 즐거운 어린이집과 산들 어린이집, 마법 방과후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관을 했고 마을의 여러 단체들이 점점

모여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주로 아이들 위주로 단오란 무엇인가 알게 해주고 줄다리기도 하고 춤도 추고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 동네잔치와 비슷하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관에서 하는 큰 축제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 해보자 해서, 진행했던 작은 마을 축제라서 더 재미있고 신선했지요.

처음에는 마을에 3개 공동육아조합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커지면서 마을축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마을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지원이 되고 좀 더 확대돼서 참여자 섭외부터 조명 달고 텐트 세우는 것 등 하나하나 저희가 했습니다. 조합원들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은 주변 많은 시민단체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풍물패와 마을도 한 바퀴 돌아오는 길놀이로 시작되는 단오 잔치는 나름 마을에서 유명한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목은 어떠신지요.

아빠들 모임이 있습니다. 축구도 하고 자전거 타고 춘천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요.

아파트나 그런 데서는 이웃들과 술 한잔 하기 어려운데, 이 동네에서는 다양한 계층인데 두 세 명이 모여서 술 마시다가 어쩌다 보면 열댓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술 마시면서 애 키우는 얘기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친해져서 동네 사람들 만나서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이사를 간 사람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전화하고 만나고

그럽니다. 이 동네에는 88년 시대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거 같아요.
동네 사람들 데면데면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이야기하고 오며 가며 만나고 또 전철에서도 만나고 친척보다 더 자주 봅니다. (웃음)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일곱 집이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놀기도 했어요. 휴가 맞춰서 제주도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와 연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대가 강하고 잘 뭉칠수록 다른 사람들과 융합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느슨한 연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유연하게 쓰이면서 느슨한 연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같은 이상을 모아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마을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였다 헤어지는 것도 '우리 헤어지면 안 돼'가 아니라 저 사람 저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알게 되면 또 그 사람 성향을 아니까 이렇게도 모일 수 있고 저렇게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더 많이 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동네에서 재미있게 살도록 이끌어나가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마무리 말씀해주시면요.

예전의 역사는 왕들과 정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느질하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의 역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는 없었고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의 마을에 대한 기록,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그런 걸 모아서 또 하나의 뭘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계속 인간다운 세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영님은 아이들 공동육아를 하면서 부모들과 같이 공동체를 배우고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데 힘을 써왔다.
파편화되어 있는 현대의 도시 삶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농산물 우리
우리농


KIA MOTORS



율당 & 유자놀이터 이수호

34세 아직도 풋풋한 티가 나지만 진지함이 묻어나는 청년!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마을자치센터 옆 건물 1층 카페에서 이수호 지역활동가와 마주 앉았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보유자이기도 한 그는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이 유달리 크다. 청년활동가로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로부터 지역 네트워크와 공동체에 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마을공동체 생태계지원단 활동을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박원순 시장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마을공동체 사업이었고, 이후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지원단이 자치구마다 생겨났습니다. 이때 만든 마을공동체 지원 조직이 마을공동체생태계지원단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생태계라 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태계라는 단어가 이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마을주민 3명이 모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고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과 마을공동체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청년활동가로 그리고 사무국장으로서 일을 한거죠. 중곡4동만이 아니고 광진구 전역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생태계지원단이란 말이 주민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이름이라서 훗날 지원단 이름을 “마을나루터”로 바꾸었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지원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14년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청년활동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에 청년네트워크 조성 및 지역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들을 했고, 지금 50플러스 마을기록지원단 선생님들이 하시듯이 마을 사업을 하는 주민들과 마을활동가를 찾아가 인터뷰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사무국장으로 활동할 때는 공모사업, 마을지원활동가 지원, 동네별 마을공동체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는 이웃만들기 사업, 주민제안사업, 공간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있는데 대략 한해에 70~80건 정도의 마을사업선정이 되는데 팀원마다 하나의 공모사업을 맡았었고 저도 하나를 맡아서 관리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원활동가들이 상담과 컨설팅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동네별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에서 저는 군자·화양·능동 마을넷을 담당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고, 더불어 사무국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70~80건이나 되는군요? 그중에는 지금까지 활동해오는 단체도 있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부터 지원받고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임들이 있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주로 공간지원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곳들이네요. 구의2동의 '함께누리',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등이 있습니다.

마을지원활동가 이정원선생님도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마을지원활동가분들은 서로서로 잘 아시겠네요?

네, 그렇지요. 이정원 선생님도 잘 알지요. 제가 마을나루터에서 활동할 당시에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을 하셨어요. 마을 사업하는 분

들끼리의 관계망을 넓혀주는 일도 우리의 역할 중의 하나니까요.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지원활동가들끼리도 서로 친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이라고 할까요? 뿌듯한 게 있으신가요?

오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큰 보람입니다. 관계망을 넓혀가는 게 우리의 일이자 기쁨이기도 하고요. 마을 활동을 하기 전에는 지역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마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아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방사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어려울 때 전화 몇 통으로 바로 해결이 되곤합니다. 인적 자산이 아주 크게 불어난 거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려면 생활공간이 이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주는 어디에 하시나요?

신성시장 인근에 삽니다. 2007년부터니까 중곡4동에 둥지 튼 지 13년째가 되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역시 그러시군요. 청년지원 활동경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원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복지관 일이 제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관계 맺으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찾다가 우연히 마을공동체 활동을 알게 되었고, 청년활동가로 광진 지역에서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청년들과 달리 지역 활동에 대한 의지가 일찍부터 있으셨던 듯합니다. 보통은 학교 졸업하고 기업체 입사해서 돈도 벌고 재미있게 개인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선생님은 남달랐던 것 같네요. 만족도는 어떤가요?

대단히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속에서 주민들이 관계 형성이 되고 활동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사례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음. 글쎄요. 여러 모임이 있는지라 당장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를 꼽자면, 이웃만들기 사업을 했었던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의 만남을 들 수 있겠네요. 광진구 내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종일 한 공간에 머물면서 학습도 하고, 모임도 할 만한 전문복지관이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자치구로 멀리 다니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우리도 복지관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눈빛이 지금도 선하고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하셨으면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이 하신 활동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재미있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율당과 유자놀이터밴드에 대한 말씀 좀 듣도록 할까요?

율당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율곡은 5천원권 지폐 초상이고, 신사임당은 5만원권 지폐 초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착안하여 '율곡과 신사임당' 줄여서, '율

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5천 원 내는 수강생 10명과 강사료 5만 원만 받는 강사가 만나는 배움, 나눔 강의를 구상한 거죠. 커피만들기, 수분크림 만들기, 우쿨렐레, 포토샵, 집밥, 켈리그라피 등의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우쿨렐레 팀들은 재미를 느껴 밴드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여기서 모임을 확대시킨 게 유자놀이터 밴드(유유자적 놀이터 밴드)입니다. 다양하고 평소에 보지 못한 악기,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의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저희의 장점이었어요. 저는 멜로디언을 했고요. 리코더, 우쿨렐레, 장구, 짐베, 기타 등이 있었습니다.

공간이나 시간 등 제약이 많았을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가 되었나요?

장소 제공은 유자놀이터 멤버 중 한 분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이셨어요. 그분이 센터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멤버들이 대부분 이삼십대 직장인이었기에 매주 토요일 주말에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유대관계가 아주 끈끈했죠. 마을 행사에 초청받기도 했고 공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밴드 활동하면서 청년 페스티벌도 기획했었습니다. 건대에서 활동하는 밴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을 초청해서 건대 분수 광장에서 청년축제도 진행했었죠. 참 재미있었고 서로 간에 깊은 정이 쌓였습니다.

최근에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너무 자주 모였기 때문일까요? 약간 지치기도 하고, 각자의 사정도 있고, 사는 곳이 광진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2~3년 살다가 이사 가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가 형성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잠자는 곳 정도로 되지않고 생계 활동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젊음의 열기가 크게 느껴집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아울러 활동이 중단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무슨 지원을 받으셨나요?

율당과 유자놀이터 둘 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받았고. 그중 이웃만들기 사업,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각각 총 2회 정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율당의 경우 5명 정도가 기획단이었고, 참여자는 10명 정도. 모두 15명 정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율당 사업을 하면서 매번 강좌를 만들어 신청을 받고, 강사 섭외를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율당의 경우에는 청년 허브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크게 느끼거나 본인 스스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과거에는 마을이나 공동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관심을 두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 자연히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많은 관계 형성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활동의 범위가 또 넓어졌고요. 지금은 생계 관련 일도 지역에서 하면서 마을공동체 일을 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러 일을 하시면서 마을주민들이 우선하여 지역에 원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느끼셨나요?

역시 공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절실하더라고요.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편하게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필요한 거죠.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통의 이해와 욕구에 공감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모여서 작당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성세대와 달리 자기 공간을 가진 청년은 없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늘 이 문제가 공통으로 떠오릅니다. 청년끼리 모여서 책도 읽고 소모임을 만들기도 하려면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하거든요. 청년뿐만 아니라 마을 사업을 하시는 주민들 또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죠. 마을 활동이 활발한 곳들을 보면 주로 공간이 있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관공서 등을 활용하려고 시도해봤지만 관리 차원에서 어렵더군요. 만약 공간을 준다면 마을공동체 활동이 아주 번창할 것으로 봅니다. 저의 경우는 당장 강좌사업부터 해보고 싶고요.

인터뷰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 이수호님과 비슷한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마을 곳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분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으면 공간 문제 일부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지역에 관한 관심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깊으신 점에 큰 감명을 받았다.


大雄殿
70오 5690
02소 5278
71더 7036







퀼트와 함께 수다를 이정원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이정원님

동네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정원님은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50세 이후에 공동체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실험하고 있다. 실제로 친한 이웃과 차량 공유를 실천하면서 만족하고 있다. 손재주가 많아 마을 사람들과 늘 뭔가를 만들고 나누며 중곡4동을 아낀다.



마을 일과 모임은 일상

시작은 2009년 광진맘 카페에서 엄마들과 대공원 걷기 모임을 하면서부터였다. 육아에 찌든 24시간이 너무 답답해서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만났다. 절실했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때라 단 몇 시간의 자유지만 숨통을 틔우는데 충분했다. 2년 동안 동네 아기 엄마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의 여유와 힘을 얻었다.

그 후로 한복기능사였던 이정원님은 '퀼트와 함께'라는 퀼트 모임을 만들었다. 작은도서관 '놀자'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퀼트를 가르치고 책도 보며 소통했다. 그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 도서관 지킴이를 자원해서 2년 정도 봉사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이웃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모임의 보조금을 받게 되자 사람들을 더 모집하고 가방이나 주머니 등을 만들어 나눠 갖고 하나씩 기증했어요. 작은도서관에는 세월호의 노랑리본 15개를 이어붙인 큰 걸개도 기증했습니다.

이후에는 구의동 마을계획단에 들어가 활동하고 골목축제 등 광진구와 중곡동의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퀼트 모임은 서로의 단단한 관계를 말해준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실험 중

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사회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이 돌봐주지 않으면 나 혼자는 살수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부모하고 외따로 독립해서 떨어져 살더라도 옆집 아줌마한테, 아저씨한테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회가 되

려면 공동체가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정원님은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50세 전까지 공동체로 살아가는 실험을 하기로 말이다.

실제로 작년부터 잘 아는 이웃과 차량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집이 차 한 대를 갖는 거예요. 한 집은 주차장을 제공하고 다른 집은 차량을 제공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같이 부담하고 1년을 해보니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차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차량을 써야 할 시간이 서로 겹칠 때는 양보하거나 귀찮은 지점이 있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이 잘 돼있어서 아직까지 차를 없앤 건 잘한 일이라고 만족합니다.

동네 사랑방

5년 전에 살고 있는 주택 1층에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었어요. 사업일에 많이 지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이 공간에서 모임도 계속 유지하고 장소가 필요한 분들에게 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의 과외 장소도 되고 아카데미 쿱이라는 선생님들 협동조합이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들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험기간에 와서 공부도 하고 날씨 추울 때는 바깥에서 방황하지 말고 와서 쉬다 가라고 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아이들 책과 어른들 책도 갖춰있어서 코로나로 도서관이 기능을 못할 때 아이들이 숙제하느라 책 빌려 가기도 해서 작은 도서관 역할도 합니다.
저녁이면 동네 아빠들의 편안한 만남 장소이며 당연히 낮에는 엄마들이 차 마시고 바느질도 합니다. 모임들 많이 이용하시라고 화장실 공사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적이 뜸해져서 아쉽습니

다. 이정원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장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인 거 같다. 아무 때나 맘 편히 다녀가도 된다는 이곳은 언제나 따뜻한 나눔이 있는 동네 사랑방이다.

중곡동이 좋은 이유

가장 좋은 점은 자연환경이죠. 앞에 산, 대공원, 조금만 나가면 한강, 저희는 주말에 온 식구가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가서 다 돌고 오는 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애들하고 어디든지 갈수 있고 돈도 안 들이고 맘만 먹으면 계획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좋아요.
두 번째는 가까운 신성시장이나 제일시장으로 물가가 정말 싸서 좋습니다.

교육적인 환경도 나쁘지 않은 것도 한몫합니다. 학교들이 다 근처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곡4동은 건대입구를 가려고해도 지하철이든 버스든 갈아타야 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한 번에 가는 광화문으로 나가 박물관이나 공원을 가요. 그러다 보니 보고 느끼는 시각 자체가 다르고 순박해서 왕따 같은 건 왜 나오는 거냐고 묻기도 합니다.

특히 중곡4동은 다문화입니다. 몽골학교의 몽골인, 통일교 재단이 있어 일본계도 있고, 롯데월드 출퇴근하는 러시아 무용수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중국계 분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한 반에 10퍼센트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아울려 지내서 다문화에 대해 포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순박해서 어디 가서 뭘 해 먹고 살까 싶기도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 편한 게

있는 동네입니다.

24시간 풀가동 놀이터, 해오름 놀이터

요즘에 놀이터들이 저렇게 성업하는 데가 없거든요. (웃음) 다 학원 가고 그러는데 오전에는 동네 어린이집 아기들이 11시쯤 되면 나와서 햇빛 보고 놀고 그네 타고 놀다가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어르신들도 나와서 햇볕 쬐고 계십니다.

1시쯤 되면 1학년들이 끝나고 와서 한바탕 놀다가 4시쯤 되면 어린이집 끝난 애들이 5시, 6시까지 놀고요. 그때 지나가면 할머니들도 식사하러 가시고 잠깐 비는 시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들이 학원 가는 틈 사이사이에 와서 잠깐 놀다가고 잠깐 놀다가고 하다가 밤 되면 이젠 술 드시는 분들 가시고 완전 밤 되면 연인들, 정말 24시간 우범지대가 될 수 없는 언제나 사람의 시야 안에 들어있는 좋은 놀이터입니다. (웃음)

놀이터에는 큰 정자가 2개 있다.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용하신다. 운동기구도 있어 몸도 움직이시고 양지바른 데는 자주 오시는 할머니들이 당신들의 의자를 가져다 놓으셔서 의자들이 있다. 주택가 안에 있는 작은 놀이터를 세대 구분 없이 남녀노소가 각기 필요에 따라 서로 공유하니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주택단지라 가능한 정 나눔

중곡4동은 예전부터 주택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조용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대부분 오래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가가호호 누가 사는지 아셔서 이사를 가도 우편물을 갖다주는 동네입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가 누구네 집 아이 인지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정원님 어머니가 농사지은 고구마를 유모차에 싣고 집에 오시면서 이 집에 이만큼 이 집에 한 봉지씩 주다 보면 빈손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에 계란 두 판이 놓여있고 문고리에 감 몇 개와 빼빼로 넣은 봉지가 걸려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누구네 김치 떨어졌다고 하면 학교에 김치통 들고 가서 거기서 김치 나눠 갖던 아직도 정이 오가는 세상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상가도 대부분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셔서 어느 분이 편찮으신지도 알고, 식구 같은 분들이라 경조사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 세대가 형제분들까지 한 동네에 모여 사는 집들이 더러 있고 자녀 세대가 한 동네에서 사는 집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라고 한다. 이정원님처럼 부모와 자식이 한 건물에 모여 살기도 하고 아파트촌보다는 노년층이 살기 좋은 곳이다. 부모님들끼리 서로 친구였는데 연로하셔서 자녀들이 심부름 다니다가 친구가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도제한에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기를 바란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나갈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는 활동으로 이정원님은 요즘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해주셨다.

'바르게 걷기'라는 이름으로 걷기 모임을 다시 하려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했던 대공원 걷기 모임에서 착안해서 광진구 보건소와 주민연대랑 같이 하는 민간협력 사업입니다. 예전에 대공

원 걷기 모임을 하던 회원들에 인원을 더해서 이번에는 중랑천 뚝방길을 걷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섯 번 들어있고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인 주민모임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엄마들이 코로나에 정말 직격탄을 맞은 거 같아요.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개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저녁 먹고 들어오던 남편들도 저녁 안 먹고 오고 애들은 삼시 세끼에다가 간식 두 끼까지 해서 다섯 끼 차려야 되고. 하하하 그러니까 요만큼 자유 있었던 것도 없어져서 그게 직장 다니는 엄마, 다니지 않는 엄마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우울감이 올라갔어요.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걷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엄마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와서 움직이고 모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그때 원하는 뭔가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는 한 사람이 걸리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니까 엄마들이 나의 활동을 없애 버린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다 활동을 하지만 나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다른 활동으로 뉴딜일자리로 동 네트워크지원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주민자치로 갈 때 주민들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도록 저희가 매개가 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네트워크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원님의 중곡 4동에 대한 애착

일단은 포근하고 따뜻하죠. 내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가 다른 동네 가면 왠지 추워요. (웃음) 어디 가면 바람 부는 거 같고 엄마 품 떠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웃음)

이정원님은 35년 넘게 중곡4동에 살고 있고 광진구를 떠나서 뭘 해 본 적이 없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지지를 해줘서 마을에서 뭘 해보겠다며 3, 4년 정도는 집에 일 내팽개치고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곡4동은 제가 공동체 삶을 얼마나 해나갈 수 있을지 실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술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게 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공동체 생활을 실험해보면서 아직 평생을 같이 할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서울살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공동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튼튼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중곡4동은 50이후의 공동체 삶이 이루어질 희망의 발판이며 실험은 계속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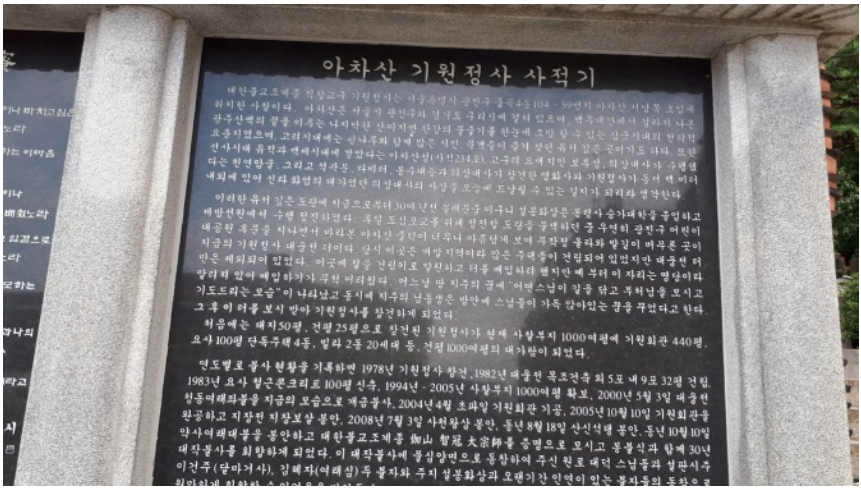












아차산 기원정사 사적기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기원정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04 - 59번지 아차산 서남쪽 초입에 위치한 사찰이다. 아차산은 한강의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 있으며,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광주산맥의 끝을 이루는 나지막한 산이지만 산강의 물줄기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성내루와 함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선사시대 유적과 백제시대에 방랄대는 아차산성(사적234.8), 고구려 초대 지인 보루성, 최장대사와 수행했다는 천정암굴, 그리고 석각등, 다비터, 물유배들과 의상대사가 창건한 영화사와 기원정사가 등서 대어져 내외에 있어 선사 화엄의 대가였던 의상대사의 사상을 모두에 도당할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 생각한다.

아리한 유서 깊은 도량에 지금으로부터 30여 년전 불교중흥을 비구니 법문화상은 불원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비방전원에서 수행 정진하였다. 특히 도심포교를 위해 정진할 도량을 물색하던 중 우연히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옥문을 지나면서 바라본 아차산 중턱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곡작법 옥작와 방질이 머무른 곳이 지금의 기원정사 대웅전 다이다. 당시 이곳은 개발지역이라 많은 주택들이 건립되어 있었지만 대웅전 터만은 비워져이 있었다. 이곳에 절을 건립으로 정진하고 더불 매입하려 했지만 매 부터 이 자리는 명상이라 알려져 있어 매입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어느날 밤 지극의 꿈에 "여덟스님이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동시에 지주의 남동생은 밤안에 스님들이 가족 같아있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 후 이 터를 보시 받아 기원정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지50평, 건평 25평으로 창건된 기원정사가 현재 사찰부지 1000여평에 기원회관 440평, 요사 100평 단독주택 4동, 빌라 2동 20세대 등, 건평 1000여평의 대가람이 되었다.

연도별로 불사 현황을 기록하면 1978년 기원정사 창건 ,1982년 대웅전 목조건축 외 5포 내 9포 32평 건립, 1983년 요사 철근콘크리트 100평 신축, 1994년 - 2005년 사찰부지 1000여평 확보, 2000년 5월 3일 대웅전 칠통여래좌불을 지금의 모습으로 개금불사, 2004년 4월 초파일 기원회관 기공, 2005년 10월 10일 기원회관을 완공하고 지장전 지장보살 봉안, 2008년 7월 3일 사천왕상 봉안, 동년 8월 18일 산신석탱 봉안, 동년 10월 10일 약사여래대불을 봉안하고 대한불교조계종 御山 智冠 大宗師를 증명으로 모시고 불불식과 함께 30년 대작불사를 회향하게 되었다. 이 대작불사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하여 주신 원로 대덕 스님들과 설판시주 이청주(당마거사), 김혜자(여래심)두 불자와 주지 법불화상과 오랜기간 인연이 있는 불자들의 동참으로

샌드맘 안도경

샌드맘 안도경대표를 만나다

아이들이 동의초등학교 3학년인 때, 문화 예술의 소양을 넓혀주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을 모색하였다. 여러 논의 끝에 함께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그 공간 일부에 카페를 만들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하였다. 이 조그만 공간이 바로 오늘날 샌드맘의 기원인 셈이다.



해오름놀이터 인근 샌드위치 전문점 샌드맘을 찾다

햄과 채소를 넣은 샌드위치, 햄에그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 크랩 샌드위치 등 샌드위치 전문점이다. 그 밖에 홈메이드 각종 김밥과 미니버거, 따뜻한 커피와 음료도 있다.

붉은 햇빛 차양막과 화이트 도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산뜻하면서 귀여운 공간이었다. 대여섯 평 남짓한 가게 안은 카운터 진열장, 테이블 한 개 그리고 주방이 전부다.

안도경대표는 연신 전화를 받느라 바쁘시다. 주방 안에서는 세 분의 조합원들이 김밥과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첫인상이 작지만 깔끔한 샌드맘을 만나보았다.

함께누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샌드맘

아이들이 메마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풍부한 감성을 지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에서 한 달에 두 번 숲 체험을 하면서 자연과 친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이때 모인 엄마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문화 예술의 소양을 넓혀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감성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동의초등학교 3학년 때 모인 학부모 엄마들과 논의 끝에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최초 조합원 13명으로 출발하였고, 엄마들이 십시일반 출자하여 시드머니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조합이 함께누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항시 연습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위한 공간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아차산역 인근 영화사 가는 길, 김병진베이커리 지하에 조합 사무실 겸 연습실을 꾸몄어요. 그러나 공간만 있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찾아낸 것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입니다. 구세주

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고 3,900만 원 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지하에 소방시설 설치부터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운영자금이 문제였다. 매달 임대료도 내야 하고, 선생님도 모셔야 하고, 각종 악기, 의상, 무대장치 등 돈 들일이 많았습니다. 수익사업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일부에 카페를 만들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그만 가게가 바로 오늘날 샌드맘의 기원인 셈입니다.

왜 문화예술을 떠올리게 되었나?
힘들고 돈이 없으면 못 한다고들 하던데.

어릴 때부터 공부에만 몰입된 아이 중에는 중학교 진학 이후 덩치만 컸지, 메마르고 자기 정체성이 수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반면에 문화예술활동 한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신감이 있어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엄마들도 당시에는 아이들이 잘못 될까봐 불안해했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스스로 강의도 듣고 올바르게 아이들 키우는 방안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어요. 인성, 마음 다스리는 법, 교육의 본질, 더불어 사는 법, 인간의 길, 명상 등 공부를 하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 예술 교육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부유층은 각자 알아서 하지만 저소득층은 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럿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고 함께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예술 활동 경험이 있는 신혜정 이사장님을 만난 게 큰 행운이

었어요. 지금도 아이들 문화 활동을 돕고 계십니다.

신혜정 이사장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원칙은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던 중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이웃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인연이 된 분인데 마침 문화활동 동아리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갖고 계셨고, 아울러 광진구에서 활동을 하시고 싶어하던 차였습니다.
서로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샌드맘 얘기로 돌아가자. 왜 이 자리로 오게 되었나?

임대료와 선생님 수고료 등을 우리가 벌어서 내느라 힘은 들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공간 한쪽에서 3~4년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고 아예 먹거리 사업을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사업을 독립시켜 개인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고 이원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문화예술팀 그리고 한쪽에 먹거리 팀. 그 먹거리 팀이 이곳으로 분가한 셈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체 안정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매월 수익 중 일부를 함께누리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6년간 30명 정도가 활동하였고 크게 뮤지컬, 연극, 우리 전통 음악과 노래 춤 등 다양합니다.
광진구 한마당 축제부터 다른 지역사회 축제 등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UCC 대회에도 나갔고, 서울시 지원사업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물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영어로 뮤지컬을 해낸 일입니다. 춘향전, 바보온달을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하여 주변을 놀라게 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 중에는 계속 예술을 해서 예고에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예술을 접하며 자란 대표님의 아이들은 어떠한가?

지금 중3입니다. 예술 쪽은 취미로 하며 인문계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도 밝고 정체성이 뚜렷해서 엄마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들은 뮤지컬을 했고 지금도 학교에서 간간이 뮤지컬과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한테도 권유하고 싶은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기회만 된다면 하도록 권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진만 조합원입니다. 6명이 창립조합원이고 그 후 배우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어요.
또한 전문 뮤지컬 선생님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회원제로 회비 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입시학원이나 과외 등에 몰두할 때 우리는 한결같이 인간다운 삶을 노래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어지간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고, 아이들도 아주 잘 커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현재 중3이 되었으니 벌써 시작한지 6~7년이 된 셈입니다.

샌드맘 자랑을 한다면?

정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조미료 안 쓰고 음식 재료도 엄마의 마음으로 좋은 것을 사용합니다. 속성상 채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장을 특별나게 봅니다. 재료시장에 까다롭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한번 맛보신 분들이 또 오십니다. 맛있고 신선하다고, 광장동 등 타지에서도 일부러 찾아주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대전에 사시는 분이 아산병원 왔다가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셨어요.

올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4월에 이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개인 고객보다 관공서, 청년지원사업 등에 단체 도시락, 단체 샌드위치 공급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활동이 줄어 다소 위축되어 있습니다.

향후 바라는 바는?

샌드맘은 단순히 수익이 늘어서 잘 먹고 잘사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지원을 충분히 할 정도가 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샌드맘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품질이 우수하니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 우리의 뜻이 이심전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마을에 예가 되었으면 한다. 나눔의 활동을 통해 먹거리와 문화예술이 하나로 되는 가게들의 이정표라고나 할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때 극구 사양했음에도 맛이나 보라며 샌드위치 2개를 건네셨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보드라운 빵과 채소, 햄, 치즈가 각자 빛을 내고 있었다. 저녁으로도 손색이 없을 먹거리다.

주방 내 엄마 조합원분들의 웃음 어린 환송을 받으며 가게 문을 나섰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샌드맘”이어서였을까? 추위가 가시며 몸에 온기가 돈다고 느껴졌다.


샌드맘
배달의민족
배달됩니다





배실나이 허미선, 도혜연

배실나이(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이웃)라는 이름부터 궁금했다.
찬 바람이 부는 오후 구의2동 주민센터에서
특별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나며 마을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방울, 잎새를 만나다.



배실나이의 의미

배실나이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이름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유추해내기 힘들었다. 방울님의 설명을 듣고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방울: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일상이지만 공동육아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어울려 살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의기투합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이웃'의 첫 글자들을 모은 게 배실나이입니다.

놀이터에서 시작된 배실나이

방울: 해오름공원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신나게 하는데 주변 어르신들이 비눗방울 때문에 기침이 난다며 싫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나무라실 때 솔직히 속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한 동네 어르신들인데 서로 간의 만남과 안면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평상시에 서로 알고 지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마을사업을 시작한 그해 여름, 마을 어르신들께 아이들과 직접 만든 화채와 부채도 나누어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손수 만들었어요. 처음에 5명 정도가 시작했는데 점차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통상 여덟 가정 정도가 모이

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봉사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종종 지나다가 만나면 인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이해해주셨고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는 특별함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게 공동육아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두 엄마의 설명으로 이곳의 육아는 특별함이 묻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잎새: 일반 어린이집과 가장 큰 차이는 공동육아는 부모가 조합원이 되어 함께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좋은 먹거리, 매일의 나들이, 연령 통합보육 등 아이들에게 인지적 측면보다는 생활이나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갖도록 합니다.
자연, 흙, 바람과 함께 자유롭게 놀면서 사계절을 느끼고, 그 안에서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철학에 동의하시는 전문 보육교사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어릴 때는 마을 산과 들에서 맘껏 뛰놀곤 하지 않았나요? 공동육아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즐거운 산들어린이집

잎새: 중곡4동에 즐거운어린이집, 구의2동에 산들어린이집 두 곳이 광진구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어린이집이 2019년 3월 병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즐거운 산들 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중곡4동 즐거운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더없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어 있어요.

'즐거운 산들 어린이집'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되어있고요. 부모들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공동육아의 가치에 동의하면서, 재정적으로는 가입비, 출자금, 기부금, 조합비 등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28가구가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교사당 어린이 비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이 서른 두 명인데 담임교사 다섯 분, 오전교사 한 분, 오후교사 한 분, 영양교사 한 분 이렇게 교사 여덟 분이 계시니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부모들의 참여가 일반 어린이집보다 높습니다. 2주에 한 번 청소, 김장,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활동을 크게 못 하고 있습니다.

2020 세시절기를 알아가는 시간

방울: 대표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세시절기에 맞는 우리의 음식과 옛이야기, 놀이를 알려주고 함께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지에 팥죽을 쑤어먹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옛이야기를 동네 어르신들한테서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시절기에 맞춰 국화도 아이들과 함께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국화청 만드는 사업까지 해보았습니다.
또 세시절기를 표현한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달력을 만듭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 점점 잊혀가는 전통 놀이에 관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여름날 식혜도 만들어 주변에 돌려드린 경험도 있고요.

광진구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시작과 지금

잎새: 20년 전에 선배들께서 조합을 결성했고 중곡4동의 즐거운 어린이집이 광진구 최초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세워졌고요. 그 이후 구의2동의 산들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두 조합으로 약 20여 년 정도 운영되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병합되어 광진구 유일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선배들의 희생으로 중곡4동, 구의2동의 어린이집 터가 만들어진 셈이죠. 이분들 덕분에 건물 임대료 등이 나가지 않으니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아이가 등원 확정되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담 등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요. 매해 새로운 조합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졸업한 부모는 졸업조합원으로 남게 된답니다.

마을의 사랑방들을 통한 마을공동체

방울: 안타깝게도 즐거운 어린이집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텃밭도 있고 모래 놀이터도 있으며 주방도 갖춰져 있어요. 과거 어린이집이었기에 활용도가 큰데 아쉽지요. 이런 기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로 마을의 공유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민센터 등은 주말 대관이 안 되거든요. 졸업식도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즐거운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활용이 더욱 절실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구심점이 되는 소통방이 있어야 관계 확장에도 도움이 될 듯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은데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 관련 사업도 꽤 있던데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알았더라면 참석했을 텐데. 참 아쉬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홈커밍데이에는 선배 조합원들도 참석한다고 한다. 보통 6월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건너뛰었다. 선배들과도 이 모임에서 인사하고 친해지는 즐거운 산들 어린이집은 어른들의 집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아빠 모임도 활발해서 자주 모이고 회포도 풀고 아이들과 족구 축구 등도 즐기는 시간이다. 보통 15~20명 이상이 참석하여 하루를 함께 보낸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두 분은 김시현(만 5세) 엄마, 허미선 선생님, 일명 방울님과 박지울(만 6세), 박지후(만 4세) 엄마 도혜연선생님, 일명 잎새님이다. 모든 엄마 아빠들이 별명으로 서로를 호칭한다고 한다.



최현주 작가 작품 중곡동 개



최현주 작가 작품 중곡동의 개 2탄

스패너 스튜디오
최현주 작가

그림과 예술로 만나는 이웃 최현주 작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었던 작가는 대학 때 팀 작업을 인정받아 해외 수상 경력도 있는 재능 많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았다가 29세부터는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10년을 지냈다.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아내가 비춰주는 빛을 보며 지나올 수 있었다. 세상에 대해 질문이 생겼을 때 작가는 다양한 작품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 타고난 재능을 나누며 작은 일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최현주 작가를 만났다.



마을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여름에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저희 부부가 전시를 했어요. 그때 마을자치센터에서 저희 전시를 보고 제안을 하셨는데 평소 저의 취지와 잘 맞아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진구에 20년째 살고 있다 보니 일상적인 주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이 삶에 녹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하게 된 마을 일은 구의2동 사람들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를 그립니다.

예를 들면 아차산 올라가는 언덕길에 어느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그 집 앞에 예쁜 화단을 가꾸고 벤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언덕길이라 유모차나 짐을 갖고 가다가 자연스럽게 쉬면서 소통하게 되는 공간이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장소들 여덟 군데를 지정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스패너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계속 작업하시는데 이름이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대학교 때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팀명으로 만들었거든요. 집에 있던 스패너가 햇빛에 쨍하게 비치는 모습이 뭔가 강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저항적이고 세게 보이는 것이 청춘들과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은 거지요. (웃음)

그 뒤로 학원 이름도 되고 스튜디오 이름도 되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업한 작품들의 이름이 모두 스패너로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좀 더 개념을 넣는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성적으로만 또는 감성적으로만 편향되지 않도록 사람들 마음의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니 '스패너'라는 이름과 15년이 되었네요.

8월에 한 전시에 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여서 사전예약을 받고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진행한 전시입니다.
여행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제 아내 이경희 작가의 그래픽 노블 '하울과 미오의 예술기행' 스케치 원화,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작업 과정과 제가 치앙마이에 가서 그린 '인투 더 그린' 여행 드로잉 수작업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였어요.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휴식이 필요해서 치앙마이에 갔었는데 느긋하고 여유 있는 도시에서 느꼈던 삶의 에너지들 그리고 동남아의 열대 환경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들이 주는 삶의 생명력을 느꼈어요. 초록이 주는 생명력과 희망, 그것을 제 그림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전달받고 짧은 순간이라도 '행복하다', '힐링되었다'라고 표현해주시니까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 같아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림 봐주시고 책을 구매하며 공감해주신 분들 한분 한분께 캐리커처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려드릴 수 있는 감사와 진정의 에너지가 그 순간 나왔던 것 같아요.

작가님에게 광진구는 어떤 곳인지요

광진구는 너무 좋은 곳이지요. 입지적 요건으로 아차산, 용마산, 한강 그리고 중심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도심인데 어디를 다녀봐도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교통도 최고입니다. 어디를 가든 편리하게 갈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어떨 때는 인도를 걷는 자체가 피로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서지요. 어린이대공원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안 되고 금연 지역이면서 차나 자전거 없이 평화롭게 사색을 하며 편안한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골목에서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요. 방지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정차할 때도 인도 위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유모차도 다니고 어린이들도 다니는데 주차된 차 때문에 도로를 침범해서 가야 하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의식이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낮이나 혹은 밤에 골목에서 거칠게 운전하는 차들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만화가 또는 미술을 지망하는 학생과 부모님께 조언하신다면요.

저는 만화 장르는 장점이 많은 거 같아요.

다른 예술 표현 장르에 비해 작업 공간이나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작은 공간 안에서도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태블릿 기계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작업은 작품을 생각하고 그것을 디지털 화면 안에서 그려내

는 과정이라 작업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여럿이 협업을 할 때도 수정이 용이합니다.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도 네트워크로 서로 각자의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일을 하는 형태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고 하고 싶다면 도전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자신이 이 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그 순간 그걸 하고 싶다면 일단 하도록 응원해주세요. 응원해 줬는데도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죠. 직접 해봐야 깨우치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다면 분명 남는 것은 있을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 해보고 더 이어갈 수 있다면 계속 이어가고요.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그 순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로 마을과 함께할 계획이 있을까요

중곡동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이곳에서 생활하며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을 그려보고 싶어요. 중곡제일시장으로 향하는 긴고랑로에서 세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날이 좋아지면 그분들의 모습을 드로잉으로 담고 싶었는데, 최근 모두 없어졌어요. 그리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마을의 동물들도 그리고 싶습니다.
개와 주인이라는 주제로 강아지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사는 곳 골목의 모습인데요. 항상 계단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고요. 다른 강아지는 담벼락에 목을 내놓고 늘 바깥을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집에는 분홍빛 큰 꽃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집이 없어졌어요.

늘 다니는 곳이나 살고 있는 주변의 풍경을 수집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 몇 점밖에 없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간이나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도 잘 표현했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여기를 따뜻하게 혹은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문득 힘든 날 멀리서 위안을 찾기보다는 내가 있는 이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움과 특별함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사랑하고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상을 그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지만, 꾸준히 담아내서 작업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현주 작가는 창작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늘 그림을 곁에 두고 살았다. 앞일을 알 수 없었지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꾸준히 노력했다.
아내의 충분한 이해와 주변의 따스한 관심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겨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최 작가의 머릿속에는 캐릭터와 반짝거리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웹툰과 출판과 전시로 더 친근하게 작가의 작품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최현주 작가 작품 어린이대공원의 봄 종이에 수채화 39x27cm



최현주 작가 작품 어린이대공원의 가을 종이에 수채화 18x25cm

<중곡4동 마을자치이야기>는
동단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나누기 위해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서 기획하고
50+마을기록지원단 **정성출, 한미정** 선생님의 인터뷰와 기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성출, 한미정 선생님이
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중곡4동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동네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기획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동마을자치이야기 기획단
글쓴이 | 정성출, 한미정 (50+ 마을기록지원단)
디자인 | A32
인쇄 | 서광인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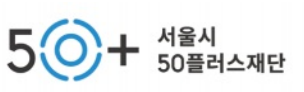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전화 | 02. 6949. 6981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본 결과물은 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
「50+마을기록지원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 있습니다.”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